Economy p/12



신용카드에도 녹색 바람이~

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제310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신해철 추모공연 이어진다

한화, 창사 이래 최대규모 M&A

삼성테크윈·종합화학 인수 방위사업·유화 1위로
삼성그룹은 전자, 금융·서비스, 건설·플랜트 집중

한화그룹이 창사이래 최대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26일 삼성테크윈 지분 32.4%와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삼성테크윈 지분 포함 81%, 자사주 제외) 등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는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는 이에따라 삼성그룹이 보유한 삼성테크윈의 지분전량인 32.4%를 8400억원에 인수한다. 또 삼성종합화학의 지분 57.6%(자사주 제외)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공동으로 1조600억원에 인수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그룹은 상장회사인 삼성테크윈의 지분 32.4%를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삼성테크윈은 삼성탈레스 지분 50%도 보유해 한화그룹은 삼성탈레스의 공동경영권도 보유하게 됐다.

이번 M&A는 한화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시너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올 여름부터 삼성그룹 측에 제안해 성사됐다. 삼성그룹 측은 사업구조 개편차원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초대형 M&A가 성사됐다.

한화그룹 고위 임원은 "한화그룹은 M&A를 통해 성장한 회사"라며 "오래전부터 삼성그룹 측에 M&A를 요청했고, 삼성그룹 측도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 매출 2조6000억대로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통해 2013년 기준 방위사업 부문 매출이 1조원 규모에서 2조6000억원으로 증가해 국내 방위사업 분야 1위로 도약한다.

특히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기존의 탄약, 정밀유도무기 중심에서 자주포, 항공기·함정용 엔진과 레이더 등의 방산전자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차세대 방위사업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확충했다.

또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을 인수해 석유화학사업 부문 매출규모가 18조원에 이르게 됐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서 1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 생산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인 291만톤으로 증대돼 나프타 대량 구매로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나프타-콘덴세이트-LPG로 다각화된 원료 포트폴리오를 갖춰 저가 원료를 기반으로 한 북미·중동의 석유화학 회사들과의 경쟁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제품 측면에서도 기존 에틸렌 일변도의 제품군에서 탈피해 폴리프로필렌·파라자일렌·스티렌모노머뿐만 아니라 경유·항공유 등 에너지 제품 등으로 다각화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일부 주력 제품의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수익 성장의 기반도 마련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됐고, 지난 60년간 그룹성장의 모태가 돼온 방위사업과 석유화학사업의 위상을 국내 최대 규모로 격상시켰다.

방위사업과 유화사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한화그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딜이 성사됨에 따라 한화그룹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사업구조 재편작업을 일단락했다. 주요 사업부문에서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 사업구조 재편 가속화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은 최근 진행해온 사업구조 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그룹은 그간 전자사업과 금융·서비스, 건설·플랜트 등 3대 사업분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경쟁력이 미약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경우,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환으로 삼성그룹은 지배구조의 정점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중심으로 올 9월까지 최근 1년간 8번이나 그룹내 사업을 재편했다.

지난해 9월 제일모직은 패션사업을 삼성에버랜드에 넘겼다. 이어 삼성SDS는 삼성SNS를 흡수합병했다.

10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코닝에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을 매각했다. 11월엔 삼성에버랜드가 급식 식자재 사업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고, 건물관리사업을 에스원에 넘겼다.

올해 3월에는 삼성SDI가 옛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한 데 이어 4월에는 삼성종합화학이 삼성석유화학과 합치기로 결의했다. 삼성종합화학, 삼성SDI의 통합법인은 각각 6월과 7월에 출범했다. 삼성은 특히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을 결정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해군 소위된 SK그룹 회장 딸 민정 씨 최태원 SK그룹 회장 둘째딸 민정(23) 씨가 26일 오후 경남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17기 해군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소위로 임관된뒤 어머니 노소영 씨로부터 축하를 받고있다. 민정 씨 등 신임 소위들은 앞으로 병과별 초등군사반 교육을 이수한 뒤 실무부대에 배치된다. /연합뉴스

자사고 취소 기준 강화

교육부장관 동의 받게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상시로 지정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지정취소를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은 이로부터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되 필요하면 통보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반려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나와 있는 자사고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한 부분은 논란 대상이다.

시행령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해 '관련 주체가 해당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 운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아 '자사고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주영기자 boa@

알림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베토벤 합창' 오늘 개최

독자 200명 힐링으로 초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송년 음악회가 열린다.

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헨델 메시아&베토벤 합창'이 27일(오늘) 오후 8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무대에 오른다. 이번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아픔이 많았던 해인만큼 '쉼'과 '힐링'을 주제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레퍼토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서희태가 지휘하는 밀레니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이 헨델의 메시아와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연주한다. 지휘자 서희태는 MBC 인기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강마에의 실제 모델이자 예술 감독을 맡았다.

또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등이 무대에 올라 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을 노래한다.

metro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정부 증시 발전방안

은행·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 한도 상향 추진도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며, 한국판 다우지수인 'KTOP 30' 개발과 코스닥 개별종목 선물·옵션도 허용할 방침이다. 가격제한폭 ±15%→±30% 확대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현재 6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운영위원회)을 설치하는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의 주식 투자한도를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도 늘리고자 분산형 펀드를 도입하고 투자일임 재산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와 공모펀드의 소액·단기 차입을 허용한다.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 제한도 완화된다.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선 유가증권시장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와 코스피200, 코스닥지수 등이 있으나 국내 경제·산업·증시를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외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전날 종가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한 가격제한폭도 올리기로 했다.

그외 저유동성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MM)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펀드매니저의 운용실적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장 주식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 공시제도와 증권사의 기업분석가(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국토위 전체회의도 파행 26일 국토교통위원회의가 야당 의원들이 회의도중 밖으로 모두 나간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창조경제' 결실에 대한 기대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겠다."

민간과 정부의 '창조경제' 성과와 사례가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펼쳐진다.

'창조경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우리 곁에 와 있는 창조경제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일반국민, 스타트업, 대기업, 정부부처 등이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그야말로 '창조경제'의 실체와 성과에 대해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창조경제박람회가 우리나라 혁신 아이콘으로 커가야 한다"며 "박람회를 계기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차관은 창조경제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제1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한 제품을 예로 들었다. 당시 대상 수상작은 고무장갑 탈착용 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 차관은 "이처럼 창조경제는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창조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찾아와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와 올해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해 주력했다면 내년에는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내년이면 정부가 창조경제를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친 3년째다. '실질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2015년에 앞서 펼쳐지는 창조경제박람회가 국민에게 '진정 창조경제의 꽃과 열매가 이런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희망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 野 '국회 보이콧' 초강수

여야 대치로 멈춰선 예산국회

정기국회가 26일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꺼내들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해 전 상임위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5일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지원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체적 지원 규모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5233억원이라는 액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금액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잇단 합의 번복은 상임위 중심주의, 상임위 재량권에 전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대로는 예산 심의를 함께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정됐던 예결특위를 비롯해 경제 살리기법 등 법안을 심의하던 각 상임위의 활동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강행하면 정국 냉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현정기자 jhj@

野 공무원연금안 내년 4월 처리방안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당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정의화 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최 대변인은 "이들 법률 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 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 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고액·상습 체납 2398명

정태수 전 회장 한보철강이 423억으로 1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과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51)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 체납자는 성명과 상호·나이·직업·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우선 개인 중에서는 도소매업인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대표인 이성구(38)씨가 종합소득세 등 424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이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대근(50)씨와 가구업체 ㈜라자 송자현 전 대표도 부가세 등 377억원, 233억원을 각각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또 법인 가운데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공업이 부가가치세 등 4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아울러 ㈜뉴상현건설(대표 최금철, 체납액 255억원), ㈜라자(대표 장유미, 체납액 234억원),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대표 이성구, 체납액 19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된 표순종씨(62, 골동품 중개업)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뒤 거짓 증빙, 소득 조작 등을 통해 9억4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김경철(46·고물상업)씨는 창현금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8억7900만원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2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은 지난해 2598명과 비교할 때 200명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체납액도 4조1854억원으로 지난해 4조7913억원에 비해 6059억원 줄었다.

한편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728명, 법인 6792곳 등 총 1만7520명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73건에 걸쳐 2225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9건, 1073억원), 조동만 한솔부회장(2건, 715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13건, 6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해상시위 나선 대청도 어민 26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어민들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을 설치한 어선을 타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약은 약사에게, 입법은 입법부에

여의도 패트롤



입법부인 국회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입법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행정부 공무원은 행정을 집행하고 실무를 챙긴다는,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 심판자로서 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런데 국회가 과연 입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특히 그렇다. 정부가 만들어온 법률안은 채택률이 높은 반면 의원발의 법안은 아주 낮기 때문이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곳은 각 상임위내 법안소위다.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소위에서 법안이 제대로 검토돼야 한다. 소위 내에서부터 정부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거의 통과되는 반면 의원안은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통과된다. 모든 법률안은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긍정적 측면이 크면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 법안 심사과정이 바로 그 판단을 하는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부는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선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하는 의견을 미리 배포하고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자료를 보고 반박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만든 정부 의견은 소위 회의장에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의 입을 통해 나온다. 문서로 배포되지 않는다.

정부 의견을 미리 국회에 주지 않는 이유는 재반박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꼼수다. 상당히 괘씸한 일이지만 그렇게 관행이 굳어져 있다. 법안 심사에 정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의견 청취를 위함이지 정부에 결정권을 주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 의견'을 무기삼고 있다.

정부안에 대해선 의원들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거의 통과시켜 준다. 그런데 정부 대표들은 의원 입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만 내놓고 일단 반대하기 일쑤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내면 좋은 법안이고 의원이 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지시키는 일이 법안 심사에서 종종 벌어진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힘이 빠지면 행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받는 현 상황은 국민에게 좋은 건 아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행정부 공무원들이 잊어선 안된다. 특히 소위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은 이 점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한다.

/유보좌

무점포 먹거리 창업하면 고수익 올린다?

74억 챙긴 일당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점포 먹거리 창업'을 하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창업비용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한 창업 알선 업체 대표 한모(6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800여 명으로부터 창업비 74억여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냉동피자, 라면밥, 도넛 등 주로 냉동 인스턴트 식품을 다른 점포에 입점시켜 판매 수익을 올리는 무점포 창업을 하면 소액 자본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케이블 TV를 통해 광고 방송을 냈다.

이들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창업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800만~1000만원을 받았다.

이 업체는 PC방, 동네 슈퍼마켓 등 영세한 업체들을 섭외해 수익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도 못했다.

또 직접 제품을 생산해 창업주들에게 공급하는 '식품 창업 알선 업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식품업체에 주문한 뒤 창업주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식품업체에서 공급받은 가격의 80% 수준으로 창업주들에게 제품을 공급해 선심을 샀지만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물량이 달린다고 속여 잘 팔리지 않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유주영기자 boa@

상명대, 학부모 대상 1 대 1 입학설명회

상명대학교(총장 구기헌)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학부모 대상 2015학년도 정시모집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작은 규모로 여러차례 입학설명회를 가져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로 서울캠퍼스의 정시모집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상명대의 전년도 정시모집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학관련 담당자들의 1대 1 입학상담도 이루어진다.

참가를 위해서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명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mu.ac.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2-2287-5013(상명대 입학사정관팀)으로 하면 된다.

1개월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10대 징역 5년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10대 어머니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초 남자친구 설모(20)씨와 아이를 낳았으나 이내 후회하고 살인을 공모했다.

설씨는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씨는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고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유주영기자

방송대 프라임칼리지, 한의학 수강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학장 김영인)가 중년층의 '무병장수'를 위한 교과목 '제2인생대학 마스터클래스-몸을 다스리는 삶(한의학)'을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한의학 기초 개념의 이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을 통한 생활 관리법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5060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여성을 아름답게 하는 건강관리-한의학의 갱년기 관리',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관리-한의학 정신건강'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한 건강 증진 활동 비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이 강의의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12월 중순부터 홈페이지(http://prime.knou.ac.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3668-4433~4로 하면 된다.



세계 최대 아이스링크

metro Russia

5000명 동시 스케이트

러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아이스링크가 생겼다.

2만여㎡ 규모의 아이스링크는 모스크바 베데엔하 전시장 앞에 들어섰다. 총 수용 인원은 2만 명에 달하며 5000명이 동시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 아이스링크로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아이스링크는 28일 성대한 개장 행사로 시민을 맞는다. 프랑스의 유명 극단 '트랑스 익스프레스'가 높이 17m의 얼음 위에서 축하 공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링크 관계자 블라디미르 포그레벤코는 "행사 당일 귀여운 백곰 캐릭터와 산타 복장의 직원이 아이스링크를 찾은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스링크의 규모가 큰 만큼 안전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며 "카메라 1000여 대를 현장에 설치하고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3세 '화장의 달인' 화제

metro HongKong



중국의 13세 '화장의 달인'이 화제다.

25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러우러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소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화장법을 소개하며 파워 블로거가 됐다.

러우러우가 올린 '여섯 살 때부터 파마', '엄마와 함께 레이저 제모' '저렴한 제품으로 예쁘게 화장하기' 등의 글은 순식간에 여기저기로 퍼졌다. 한국식 눈화장 사진도 인기를 끌었다.

나이답지 않은 사진과 말투 때문에 네티즌들이 나이를 의심하자 러우러우는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올리며 나이를 증명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는 "매일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끔 주말에만 화장을 한다. 평상시에는 민낯"이라고 대응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아동 장난전화 하루 400통

metro Brazil

400 trotes de crianças por dia

Serviço. No 1º semestre foram cerca de 72 mil casos na Baixada Santista

브라질 산투스 지역의 군경이 어린이들의 장난 전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산투스 군경 운영 센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등록된 장난 전화 건수가 7만2000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400명의 어린이들이 군경 측에 잘못된 전화를 걸고 있는 셈. 심지어 전체 신고 전화 중 장난 전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는 상황이다.

산투스 군경 운영 센터를 이끌고 있는 다니에우 마르키스는 "아이들의 장난 전화는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장난 전화에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라며 "예를 들면 전화 상으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소음이 들려 가정 폭력이 판단되면 바로 진실 여부 파악을 위해 현장에 대원을 곧바로 투입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장난 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는지부터 파악한다. 발신 위치 및 발신자 신원이 파악되면 아이 부모에게 경고를 준다"라고 전했다.

/카두 프로에치 기자·정리=정자연 인턴기자

'퍼거슨 시위' 美 전역 확산

미주리주 82명 체포… 배우 찰리 쉰 "윌슨은 살인자"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주리주 퍼거슨시의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에 대한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도심에서는 전날 오후 약 1000명이 시위를 벌였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수백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렸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와 텍사스주 휴스턴 등지에서도 시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CNN은 덧붙였다.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한 대배심의 결정이 24일 공개된 뒤 퍼거슨 시는 아비규환이 됐다. 분노한 시위대의 방화로 시내 건물 최소 12채가 불탔고 상점에서는 약탈이 이어졌다.

미주리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절도와 무단침입 혐의로 82명을 체포했다. 경찰과 대치 과정에서 18명이 다쳤고 이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다.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는 "극심한 소요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퍼거슨 시에 주 방위군 수백 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윌슨 경관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정말 죄송하다"며 브라운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상대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경찰로서 배운 대로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방위가 인종차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명 연예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 시위에 합류했다.

영화배우 찰리 쉰은 "윌슨 경관, 당신은 살인자다. 창피할 줄 알아라"며 트위터를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 프로농구(NBA)의 전설적 슈퍼스타 매직 존슨은 "불기소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 "흑인 젊은이들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 퍼거슨에는 정의가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홍콩 바리케이드 철거… 조슈아 웡 등 시위대 체포 홍콩 몽콕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강제 해산을 시도하자 방독면을 쓴 시위대가 나무 방패로 막아서고 있다. 이날 홍콩 당국은 시위대의 바리케이드 철거 작업을 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했다. 학생 시위대 대표인 조슈아 웡 등 지도부도 경찰에 연행됐다. /로이터 연합뉴스

개고기·고양이고기 금지!

스위스 동물보호단체 청원… 1만6000명 서명

스위스의 동물보호단체(SOS)가 25일(현지시간)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SOS는 "스위스인의 약 3%가 고양이와 개고기를 먹고 있다"며 스위스 의회에 애완동물 식용을 금지하는 청원서를 전달했다.

SOS의 한 회원은 "매년 스위스인이 개와 고양이 몇 마리나 먹어치우는지 알 수 없다"며 "하루 빨리 이런 야만적인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체른·아펜첼·쥐라·베른 등 일부 스위스 지역 주민은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를 종종 먹는다. 주로 소시지로 만들어 먹는 개고기는 류머티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다. 고양이 고기는 성탄절 때 토끼 고기와 같은 방식으로 요리해 백포도주와 마늘을 곁들여 먹는다. 스위스인은 말고기도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OS는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애완동물 식용 금지법안을 청원했다. 서명자 가운데는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도 포함됐다. 과거 바르도는 한국인을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SOS는 지난해 청원을 통해 고양이 가죽 판매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조선미기자

일본 화산 또 터지나

아소산화구 1000m 분연

일본 열도가 또다시 화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구마모토현 아소산 나카다케의 제1 화구에서 26일 오전 1000m 높이의 분연이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1000m의 분연이 관측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아소시의 목초지에 화산재가 쏟아졌으며 인접한 오이타현 다케타에서는 자동차 유리창에 화산재가 쌓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일본 기상청은 8월 30일의 소규모 분화 발생을 계기로 나카다케의 분화 경계 수준을 '레벨 1'(평상)에서 '레벨 2'(화구주변 규제)로 올렸다.

/이국명기자 kmlee@

잃지 않으면 번다·나는 2인자란 생각이 중요

내년 증시 낙폭 과대주·유망 강소기업 눈여겨 봐야

금융가 사람들

■ 키움증권 '채널K' 김성훈·김충달 컨설턴트

시청자와의 진솔한 투자상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키움증권 '채널K'의 베스트 투자컨설턴트 김성훈(46)·김충달(40)씨는 투자비법으로 "잃지 않으면 번다", "나는 2인자"란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증시에서는 반등으로 가닥을 잡는 낙폭과대주와 유망 강소기업을 눈여겨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두 컨설턴트는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년 안팎으로 활동한 소회와 투자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들 컨설턴트와의 일문일답. (김성훈씨는 '김'으로 김충달씨는 '충'으로 표기)



김충달

–채널K에 대해 소개해달라

충: 증권업계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흐름이 바뀌면서 지난 2006년 12월 온라인 증권방송인 채널K가 출범하게 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의 특성상 채널K를 통해 투자자문 부문의 온라인화를 선점한 측면이 있다.

김: 채널K의 장점은 고객의 니즈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쌍방향 방송이란 점이다. 고객과 대화하듯이 자유롭게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시장 폭락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낙폭 과대주를 바로 추천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 나만의 투자비법이 있다면

김: "잃지 않으면 번다", "제한된 손실을 지키면 지옥에서도 살아남는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

특히 약세장에서는 손실을 덜 뺏기는 전략을 취한다. 지난해까지 하락 장세에서도 회사와 약정한 투자지표(BMI)를 한 번도 깨지 않은 전문가로 유일했다.

손실을 내지 않으면 시장이 돈을 벌어준다는 믿음으로 투자한다. 또 상승장세에서는 실력을 자부하면서 (여러 종목을) 옮겨다니기보다 주도주에 어떻게 편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충: "시세가 1인자, 나는 2인자"란 마음으로 투자한다. 시세에 최대한 따라가면서 이탈하지 않는 전략이다.

글로벌 증시의 큰 시각에서 시장을 읽으려고 한다. 종합지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게 개별 종목을 발굴하는 식이다.

하락 장세일지라도 시장에 적응하면서 변화에 끊임없이 동참해야 한다. 미래에 좋은 장세가 나타날 것 같으면 쫓아가고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에서는 승부를 걸어야 수익률을 지킬 수 있다.

–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김: 혼자서 투자하면서 내리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저와 함께 하면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수익 내는 법을 깨달을 때다.

기억나는 한 회원은 자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매일 잦은 매매를 하면서 수수료만 내고 손실을 봤다. 강한 종목만 쫓아가고 매수 안할 시점에서 매수하고 나중에 손절매하는 그런 식의 투자를 반복했다. 상승장에서도 손실을 봤다. 그런데 제 투자자문을 받은 뒤에는 '매매스타일을 바꾸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습관을 바꿔나갔다. 지금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거둔다.

충: 제 실력으로 발굴한 기업을 매수한 고객이 수익을 봤을 때 보람을 느낀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한 한 회원은 사업 실패 후 남은 돈으로 혼자 주식투자를 하다가 많이 까먹은 상태에서 찾아왔다. 논리적으로 분석한 기업과 투자전략을 추천해줬더니 차츰 원금을 회복하고 수익을 내더라.

–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충: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내려면 하기 싫은 행동도 해야하는데 이걸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장이 힘든 상황이 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결국 손실이 나고 바닥권에서 매도하거나 꼭지에서 매수하는 우를 범한다.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심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김: 여타 증권방송과 다른 전망을 한다고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때다. 대중은 대체로 방송의 전망을 따라가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 주식시장은 항상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장이 심리적 이유로 인해 망가질 때, 그런 판단을 개인투자자들은 잘 못할 때가 많다. 대외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와중에도 고객에게 '터닝포인트'라고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

– 내년 증시 전망은

김: 경기민감주가 올 한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본다. '2년 주도주 없고 3년 X주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수년간 악재로 하락한 종목들은 물론 부도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반등이 나온다. 낙폭과대된 시점이 가장 시세가 좋을 때다.

충: 글로벌시장이 통화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강소기업이나 시장 트렌드에 맞는 고령화 수혜주 등 기업별로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한다.

– 9~10년차로 오랜 시간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김: 고객들과 함께 하다보니 생각했던 은퇴 시점이 10년 이상 늦춰졌다. 앞으로도 고객 교육에 힘쓰려고 한다. 특히 키움증권의 무료 교육은 수준이 매우 높고 완성도도 있다.

투기심리만으로 들어오면 개인투자자들은 깨지기 십상이다. 최근 교육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니즈도 굉장히 많아졌으므로 앞으로도 강연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충: 주식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문업의 '결정판'격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한눈에 주식 정보를 볼 수 있고 데이터를 참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한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김성훈

신한카드, 스키장 10곳서 '할인 이벤트'

신한카드는 26일 본격적인 스키 시즌에 앞서 국내 10곳의 스키장과 손잡고 렌탈과 강습,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곤지암리조트와 비발디파크, 무주덕유산리조트, 용평리조트, 오크밸리리조트, 지산리조트, 엘리시안강촌, 하이원리조트, 웰리힐리파크, 알펜시아리조트 등 국내 10곳의 스키장에서 실시된다.



우선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리조트에서는 본인 포함 5인까지 리프트(신한카드 단독)와 렌탈, 강습이 10% 할인된다.

눈썰매장은 20%, 패밀리스파는 10% 할인한다. 슬로프 정원제로 사전예매가 필수인 이 스키장에서는 리프트권을 곤지암리조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 시 10% 추가할인을 한다.

홍천의 비발디파크는 본인 포함 4인까지 리프트 30%, 렌탈 40%, 기초단체강습은 20%를 할인한다. 부대시설인 오션월드도 2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신한금융그룹의 우수고객인 'Tops(탑스) 클럽' 고객은 리프트, 렌탈 결제 시 5% 추가 할인된다. 또 모든 고객들이 해당 스키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0.1%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받고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한국장학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업무협약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왼쪽 네번째)이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업무협력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공계 우수인재의 생애주기적 관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이공계 인재가 타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과학영재 발굴(초중등)–국가우수장학금 지원(대학)–연구인력양성(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을 한국장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 선발 시 반영하는 등 과학인재를 이공계로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과학꿈나무가 미래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boa@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980.84	(+0.63)
코스닥	547.34	(+1.00)
금리(국고채 3년)	2.10	(−0.01)
환율(원·달러)	1108.00	(−2.90)

삼성 웃고 한화 울고
빅딜 관련주 요동

삼성그룹이 방산과 석유화학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빅딜'을 진행함에 따라 두 그룹 주가가 요동쳤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에 매각되는 삼성테크윈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삼성 SDI등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을 업고 전날보다 각각 0.92%, 7.91% 3.85% 오른 120만1000원과 6만원, 13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한화는 장 중 11%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지만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결국 전거래일보다 1.27% 떨어진 3만1000원에 하락마감했다.

또 한화케미칼은 장중 한때 6% 이상 오르다 전날보다 0.75% 상승한 1만35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밖에 한화생명과 한화갤러리아는 1.88%, 0.88% 올랐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은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 그룹은 삼성테크윈 지분 32.4%와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삼성테크윈 지분 포함 81%. 자사주 제외) 등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하게 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한화, M&A 성공신화 계속된다

인수 후 부실기업 정상화…조직간 문화통합도 원만히

한화그룹이 또 한번의 초대형 M&A를 성사시켰다. 그간 한화의 성장사는 M&A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M&A를 통해 그룹이 성장해 왔다. 다른 기업이 M&A 이후 몸살을 앓던 것과 달리, 잡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직 간 문화통합도 원만하게 이뤘다. 특히 부실한 기업을 모두 정상화하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왔다.

대형 M&A를 중심으로 보면 지난 1982년 구 한양화학 및 한국다우케미칼(한화케미칼)을 인수한 것이 시초다.

향후 석유화학 시장의 발전을 확신했던 김승연 회장의 판단에 따라 회사를 인수하고 10대 그룹에 편입됐다. 1980년 7300억원 규모이던 한화그룹 매출이 1984년 2조1500억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이 회사는 한화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CA, LDPE, LLDPE 국내 업계 1위이며 매출액은 1982년 1620억원→ 2013년 3조5914억원으로 뛰었다.

한화는 또 2002년 구 대한생명(한화생명)을 인수해 현재 매출, 수입보험료, 총자산 등에서 보험업계 2위로 성장시켰다. 고용안정화·무배당 정책 등을 통해 인수당시 누적손실(2002년 2조3000억원)을 6년만인 2008년에 해소하고, 연간 이익 5000억원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는 한화그룹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다.

한화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85년 구 정아그룹 명성콘도(한화호텔앤드리조트)를 인수했다. 리조트 업계 선두주자였던 정아그룹 명성콘도는 ▲무리한 시설확장 ▲자산관리 부실 ▲불법 자금조달 등으로 파산해 정리절차를 개시했다. 1988년 당시 자본잠식(-400억) 상태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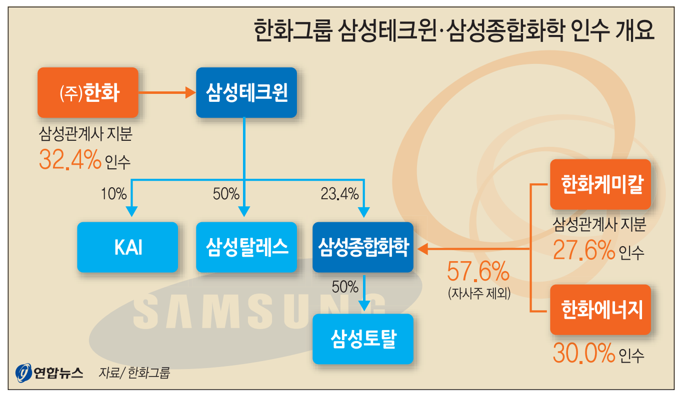
1985년 한화그룹이 인수해 사명을 한국국토개발로 변경하고 단순 콘도미니엄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레저 기업으로 성장했다.

1997년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현재는 골프장, 콘도, 워터파크 등 레저 분야는 물론 단체급식과 식자재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레저 기업으로 외형을 키웠다.

한화의 M&A는 1986년과 2000년에도 이어졌다. 구 한양유통, 동양백화점(한화갤러리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인수한 것. 한화는 1986년 당시 중화학 분야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B2C사업으로 다각화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한양의 부도로 M&A 시장에 나온 매출 1000억, 자본금 4억원 규모의 적자 기업인 한양유통을 인수했다.



삼성-한화, 화학·방산 4개사 매각·인수 26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본사. 삼성그룹과 한화그룹은 이 날 삼성의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4개 계열사의 매각·인수를 통해 사업부문 '빅딜'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인수 후 4년만에 매출액을 2배(2100억원)로 늘리고 고용 보장과 지속적인 증자, 국내 최초 명품백화점 개점 등 꾸준한 경영개선 과정을 통해 국내 최고의 백화점으로 자리잡았다.

한화갤러리아가 2000년 인수한 동양백화점은 인수전 3년간 적자상태였지만, 현재 갤러리아타임월드로 대전지역 1위 백화점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2013년말 매출은 1조2881억원이다.

한화는 2012년 구 큐셀(한화큐셀)을 인수했다. 큐셀은 2012년 4월 파산했다. 인수 당시 누적 영업자는 4600억원, 공장 가동율은 20~30%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기준 5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과 가동률 100%를 달성하는 등 반전에 성공했다.

인수 당시 파산기업이었던 큐셀을 인수 2년만에 영업이익은 물론 세전이익까지 흑자 예상되는 등 성공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 이는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력 강화 노력에 따른 결실로, 기존 한화솔라원까지 감안하면 글로벌 태양광 업계 3위 수준으로 도약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연금복권520 제178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2조	566975
		7조	722718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897117
4등	100만원	각조	42394
5등	2만원	각조	984
6등	2000원	각조	14,99
7등	1000원	각조	2,5

출처 :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조 민 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삼성그룹 사업구조 재편작업 박차

1년새 틀 바꾸기 8번

삼성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최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으로 재편작업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석유화학과 방위산업 계열사 매각으로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4개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의하면서 석유화학과 방위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한다.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 전자, 금융, 중화학 계열사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시너지 효과가 약한 화학, 방위산업 부문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사업구조 재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지배구조의 정점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중심으로 최근 1년 새 8번이나 그룹 내 사업을 재편했다.

제일모직의 직물·패션 사업을 떼어내 삼성에버랜드에 넘겼고 남은 제일모직의 소재 사업은 삼성SDI와 합병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변경했다.

또 삼성에버랜드의 건물관리업을 삼성에스원에 넘기고 급식업을 삼성웰스토리로 분리했다. 삼성SNS는 삼성SDS와 합병하고 삼성코닝정밀소재는 미국 코닝사에 팔았다.

이어 삼성종합화학과 삼성석유화학의 합병이 결정됐고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상장 계획을 공개했다. 삼성SDS는 지난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제일모직은 다음달 18일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더불어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에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이처럼 삼성이 사업재편에 열을 올리는 것은 시장환경 변화와 3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

수년간 그룹 성장을 주도한 삼성전자 등 전자부문 계열사들이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8조49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지난 3분기에는 4조600억원에 그치면서 반토막이 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렛대 삼아 지금의 순환출자구조를 재편하거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성훈기자 zen@

신창재 회장의 오랜 꿈 '물거품' 되나

issue&view

교보생명 우리銀 인수

입찰 참여 결정 못해 사실상 '무산'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신창재(사진) 교보생명 회장의 오랜 '꿈'인 우리은행 인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을 포함한 예비입찰마감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재까지도 인수전 참여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 이사회 경영위원회(이하 경영위)에서 우리은행 인수전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8일 인수전 참여를 결정하기로 한 정기이사회가 결정을 유보하고 경영위에 위임해 진행됐다.

신 회장은 줄곧 우리은행의 인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 1월 신 회장은 '2014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각 조건이 나오면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신 회장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도 이후 정부가 지난 6월 우리은행 매각 방안을 확정하자 "인수 여부를 구체적인 검토하겠다"며 인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주력사 교보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사업으로도 우리은행은 매력적이다.

실제 교보생명은 기준금리가 2%로 하락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6월 48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매해 희망퇴직을 받아왔지만 이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교보생명노동조합은 사측이 '원격지 발령', '부진자 교육' 등을 하며 압력을 가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어 연말에도 창업휴직제를 선택한 80여명의 시한(6개월)이 다가오면서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 회장은 경영권 예상 인수자금인 3조원(프리미엄 포함)을 조달하기 위해 프랑스 악사(AXA)그룹을 비롯해 사모펀드(PEF)인 IMM 프라이빗에쿼티(PE)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폈다.

하지만 이사회 이후 신 회장은 "교보생명이 그렇게 억만금을 주고 우리은행을 꼭 사겠다는 뜻은 전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로 급선회했다.

태도 변화의 주된 요인은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시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국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은행'을 대주주가 있는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현재 교보생명의 지분 34%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당국은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특혜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지분 4%)하고 있어 개인 대주주에게 매각할 경우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큰 논란이 제기될 것이란 판단이다.

경쟁입찰 방식도 큰 걸림돌이다.

교보생명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경쟁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효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

최근 인수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안방보험도 입찰참여가 불투명하고, 지분인수에 관심을 보인 새마을금고도 경영권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그간 적극적으로 우리은행 인수에 뜻을 밝힌 것은 최근 주력사인 교보생명의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신사업 발굴이 주 요인 중에 하나지만 당국의 부정적인 입장과 유효경쟁 무산 등 악재가 산재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찰을 이틀 남겨 놓은 상황에서도 인수전 참여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인수를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찰 참여를 결정하기로 한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경영위 소집을 통해 입찰 전까지 인수전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가 구조조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창업휴직제를 선택한 80명의 경우 12월 내 복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인력감축계획은 아직 없다"고 못박았다.



굿윌스토어에 생활재활용품 전달 이창구(왼쪽 네번째) 신한은행 WM영업본부장과 김봉수(왼쪽 다섯번째) 신한금융투자 WM추진본부장이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굿윌스토어 본사에서 생활재활용품 전달식을 마치고 굿윌스토어 손만석(왼쪽 세번째) 대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금융지주 내 자회사 임직원 겸직 허용

다음 달부터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에 임직원 겸직이 허용된다.

은행 임원이 증권사나 캐피탈, 자산운용 계열사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마케팅 전략과 고객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평가, 인사 등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겸직 승인신청,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선 자회사 등이 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지분을 80%이상 갖고 있다면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완전면제하고, 미만이면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선 공동영업점의 영업창구를 분리해야 하는 기준은 사라진다. 내년 5월부터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연 1회이상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토록 했다. /백아란기자

대우증권 신임 사장에 홍성국씨

공채 입사…28년 근속



KDB대우증권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홍성국(사진) 부사장을 신임 CEO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1963년생인 홍 내정자는 지난 1986년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공채로 입사해 28년 외길을 걸어온 정통 '대우증권맨'이다.

그는 투자분석부장, 홀세일사업부장(전무), 리서치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금융투자업계를 넘어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사내 신망이 두터워 임직원의 단합을 유도하고 대우증권의 위상을 공고히 할 적임자라는 게 내부 시각이다.

애널리스트 출신답게 '디플레이션 속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미래설계의 정석' 등의 저서를 발간했고 최근에도 복합불황시대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가 일본된다'를 출간했다.

홍 내정자는 "최초 공채 출신 CEO로서 더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재충전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길 것"이라며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자본시장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증권시장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노력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과 자산증식의 장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경영을 안정화하고 대우증권만의 강점을 살린 맞춤식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다음달 12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홍성국 후보를 신임 CEO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이영창 전 부사장, 황준호 부사장 등 후보 3파전 속에서 이 전 부사장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나 홍 부사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가 주목받으면서 서강대 출신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으나 이를 불식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ELS 6종·DLB 1종 출시 대신증권은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7종의 상품을 오는 28일 하루 동안 판매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신증권 제공

금융 CEO 소외계층 보듬기 앞장

연말연시 김장·연탄나르기 등 봉사활동 '활발'





/각 사 제공

금융권 CEO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김장김치부터 티셔츠 제작, 환경 개선과 연탄나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직접 발로 뛰며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삼성그룹의 5개 금융 계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사 앞 광장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삼성 금융사 임직원 18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35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여성가장과 다문화 가족, 교통사고 유자녀 등 저소득 가정 500여 가구와 전국 사회복지시설 100여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서울 여의도 본점 KDB공원에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당시 정책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산은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서울시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김장용 배추 등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담가 왔다. 이날 담근 김장은 서울시 25개구의 소외계층 1000세대와 영등포구 독거노인 200세대 등에 전달됐다.

홍 회장은 "우리가 정성으로 담근 김장이 소외계층 이웃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IBK금융그룹 임직원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나운 푸드뱅크 홍보대사 등 100여명과 함께 김장을 담갔다.

NH농협카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신응환 농협카드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쌀 나눔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그는 한편 공익기금 1억원을 '바보의 나눔' 재단에 전달했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CEO와 그룹 임직원 450명은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와 '하나금융그룹 DMZ 평화대장정 영상' 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티셔츠를 제작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등 신한카드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본사 10층에 모여 저개발국가 아동에게 내년초 선물할 티셔츠와 가방을 손수 만들었다.

이밖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노원구 중계본동을 찾아 연탄을 직접 나르기도 했다. '수은 희망씨앗 나눔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은은 저소득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연탄 5만장을 전달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ELB 1종·ELS 6종 650억 공모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28일 오후 1시까지 최대 연 8.50%의 수익이 가능한 ELS 6종과 ELB 1종을 총 6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에서 'ELB 603호'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5년의 원금 102% 보장 낙아웃콜옵션형 상품이다. /우리투자증권 제공

한화생명, 곧 추가 구조조정

한화생명이 지난 5월 300명 인원감축에 이어 올해 말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예정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노사는 24일 추가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한도와 복지혜택을 잠정합의했다. 한화생명 노동조합은 위 내용에 대해 내달 1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가결시킬 계획이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20년차 전후 직원으로, 회사는 노조 총투표가 가결된 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배종선 노조위원장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는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지급받는다. 이는 지난 5월 1차 희망퇴직자(30개월)보다 상향된 것이다.

이 밖에 회사는 복지혜택을 연장 지원한다. 연금지원수당은 5년, 학자금 1년치를 현금 보상한다.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도 3년간 보장한다.

해당 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한화손해사정이나 콜센터로 재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독립법인대리점(GA)으로의 이직도 고려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금값, 향후 방향성 놓고 의견 분분

"2년간 200 달러 오를 것" vs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 엇갈려

최근 금값이 4년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향후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금값이 향후 2년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국제가격은 지난 5일 온스당 1140.03 달러로 2010년 4월 이후 4년반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나마 25일에는 금값이 소폭 상승해 전날보다 1.40달러(0.1%) 오른 온스당 1197.10 달러로 마감했다.

금값은 올해 초 1200 달러에서 출발해 지난 3월에는 14% 오른 1380 달러까지 상승했으나, 7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은 달러화 자산의 대체재와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유로존의 경기부양 가능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 값은 내리막길을 걸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금값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렇게 되면서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금 보유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20일 기준 전체 금 ETF의 금 보유량은 연초 대비 8% 감소했고, 2012년 12월의 최고치보다 39% 줄어들었다.

은값 역시 지난 6일 온스당 15.28 달러로 연초 대비 17% 하락하면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증권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달러화 강세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과 은 국제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값이 그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오는 2016년에 온스당 1400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금 매수 확대 ▲중국 금리 인하 등을 근거로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지기자 minji@

LIG손보 '인터넷소통 대상' 수상

LIG손해보험은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에서 손해보험 부문 대상을 차지해 이부분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대외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고객과의 소통이 활발한 기업을 발굴·시상하는 이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LIG손보는 온라인 소통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63.36점을 기록, 업계 평균인 61.78점을 상회하며 1위를 차지했다.

또 기업문화와 부서, 임직원 소개, 상품 소개,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보상 상식, 스포츠단, 문화재단, 사회공헌 활동 소개, 채용 상담 등 기업의 정체성을 살린 특화된 콘텐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홍성준 LIG손험 고객지원담당 상무는 "모바일 사용이 점차 확산되면서 기업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고객 소통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고객만족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세심한 분석을 통해 계속해서 소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삼성전자 미러리스 카메라 NX1 국내 론칭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프리미엄 미러리스 카메라 'NX1' 론칭 쇼케이스에서 모델들이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LGU+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이통 3사, 단말기 지원금 위약금 제도 개선은 검토 중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에 동참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6일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미래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게 된다.

현재 이통사는 소비자가 2년 약정을 맺고 가입 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67요금제(6만7000원)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이 이뤄진다. 만일 2년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할인받은 1만6000원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사들도 고객 혜택 강화 방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다.

이미 KT는 지난 12일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실상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앴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약정을 해야만 기본료를 할인받고,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 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KT는 약정 없이도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 같은 약정할인 위약금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다음 달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고객이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부과되나 이를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해 고객 반환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도 이르면 다음 달 1일 SK텔레콤과 함께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함께 단말기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폐지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뒤 해약과 함께 단말기를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폰테크' 방지를 위해 당장 변화는 힘든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에 동참하는 등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 혜택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 중"이라면서도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의 경우 이를 악용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최선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진화하는 3D프린터 작품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4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서 관람객들이 3D프린터로 제작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 사태, 해법은?

장영보 대표 '3자 협의체' 참여 제안

케이블TV 방송업체 씨앤앰이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현재 협력업체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씨앤앰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다. 지난 12일부터는 협력업체 직원 2명이 근처에 설치된 25m 높이의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장영보 씨앤앰 대표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농성직원 대표·희망연대 노동조합 간 '3자 협의체'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노동법상 협력업체의 고용 문제에 대해 원청사로서 말하기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해 도의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고용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씨앤앰이 전면에 나서 갈등양상 해결의지를 보임으로써 문제가 쉽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고용승계 보장 ▲협력업체 직원 고용 과정 ▲비정규직 문제 등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고용승계 보장 문제는 희망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협력업체와의 '업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됐다. 즉 씨앤앰의 의무가 아닌 협력업체와의 협조사항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경영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협력업체 몇 곳에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대폭적인 임금 인상 요구와 시간외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인해 생산성 감소가 지속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이다.

이후 신규 협력업체 위탁 업무 계약서에 '고용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업체에 고용승계를 요청했다. 이에 신규 협력업체는 고용승계를 위한 면접을 진행했지만 전 협력업체 노조 소속 직원들 중 면접에 응하지 않은 직원이 74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씨앤앰이 60억원을 지원해 협력업체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즉 협력업체 직원들은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씨앤앰의 기자회견에 대해 희망연대는 "씨앤앰이 3자 협의체를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3자 협의체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과 함께 문제해결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협력사 사장단 또한 이를 수용한다면 노조 역시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 측은 교섭 의제로 해고자 복직문제와 더불어 노조의 4대 요구안이 의제가 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가 요구하는 내용은 ▲협력업체 109명의 해고자 원직 복직 ▲구조조정 중단과 고용보장 ▲2014년 임단협 체결 ▲위로금 지급 등 네가지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문제해결에도 순서가 있다"며 해고자 원직 복직 문제 해결을 통해 고공 농성에 나선 2명의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머지 문제는 추후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영기자

"회사 이익 날때까지 급여 전액 반납"

권오갑 현대重 사장…노조 오늘 4시간 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이 "회사가 정상화되고 다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사장 급여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사장은 26일 오전 울산 본사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며 "최근 회사가 매우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위기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대표 업종인 조선의 경우 공사할 때 필요한 인원수를 나타내는 '공수(工數)'가 경쟁사보다 많이 발생해 최근 입찰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다"며 "이것은 우리 회사가 경쟁사보다 거품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 3사가 보유한 주식 등 자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25일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1111억원 규모의 한전기술 지분 4.69%(179만2220주)를 매각했다.

권 사장은 특히 "회사 경영이 정상화돼 이익이 날 때까지 사장 급여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25일까지 51차 임단협 교섭을 열었지만 회사는 추가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달 5일 49차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최종 제시하고 노조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노사는 26일에도 협상할 예정이지만 회사의 임금인상 추가 제시안이 없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2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김민준기자 mjkim@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661호(2014.10.08 ~ 2015.10.07)
축
open

카메라업계, 연말 사회공헌 활동 봇물

'카메라' 특성 살린 봉사 등으로 눈길

카메라업계가 연말을 맞아 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특히 '카메라'라는 특성을 살려 어려운 이웃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일반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풀프레임으로 완벽하게 시작하라' 캐시백 기부 프로모션을 펼쳤다. 기존에 소지했던 중고 카메라를 기증하고 소니 알파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시리즈를 구매할 경우 캐시백과 배터리 충전기 세트를 증정했다. 고객이 기증한 중고 카메라는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된다. 오는 12월 3일에는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소니코리아 임직원들이 이 카메라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2012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을 초청해 '소니코리아 에코 사이언스 스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제5회 행사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 25명 초청해 미러리스 카메라를 선물하고 사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소니 측은 전했다.

후지필름 일렉트로닉 이미징 코리아는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부터 시각장애인 사진교실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후원했다. 지난 10월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일일 멘토로 나서 카메라 조작법, 사진 구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이들의 작품 70여점을 선보이는 '마음으로 보는 세상 2014' 사진전시회를 대학교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1층에서 개최한다. 특히 테두리 등 특정 부분이 튀어 나와 있어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는 '형압 사진', 저시력 시각장애인들도 빛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라이트 패널', 점자 설명 등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를 가진 관람객의 편의를 돕고 일반 관람객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원자력병원에서 '2014 힐링 콘서트'를 진행했다. /올림푸스한국 제공

올림푸스한국은 삼성동에 위치한 콘서트홀 '올림푸스홀'을 통해 전시, 공연 등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일까지는 올림푸스홀 갤러리 펜(PEN)에서 사진작가 장석준의 전시회를 개최한다. 장석준 작가는 태어난 지 백일 된 아이들이 카메라와 사진가,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취하는 포즈를 올림푸스 미러리스 카메라 'OM-D E-M1'으로 기록한 사진을 선보인다.

또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25일 서울원자력병원에서 올해의 마지막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힐링 콘서트는 병원 치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환우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에는 올림푸스한국이 후원하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올림푸스 앙상블'이 참가해 다양한 곡을 연주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신용카드도 '녹색 바람'

SK케미칼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최근 카드업계에서도 '녹색 바람'이 일고 있다.

SK케미칼은 우리카드에서 출시해 2개월만에 30만장 이상 발급된가나다 체크카드에친환경 소재 '에코젠'을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코젠은 고기능플라스틱인 PETG를 기반으로 자연 유래 바이오 물질을 중합한 소재로, 국내에서 신용카드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재로는 PC, PVC가 주로 사용됐는데 인체유해 논란이 있는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배출되는 환경적 이슈가 존재했다. 에코젠은 곡물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소재를 함유해 환경 친화적이다.

화학 성분의 접착제 사용을 최소화한 점도 특징이다.

SK케미칼 측은 "국내 카드 시장은 연간 650 t 규모, 세계적으로는 9000 t 규모에 달한다"며 "친환경성과 내구성 등 강점을 내세워 2020년까지 카드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im@



소니코리아, 향수병 카메라 KW11 공개 26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모델들이 소니코리아의 여성 맞춤형 콤팩트 카메라 'KW11'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향수병과 보석을 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180도 회전 가능한 21㎜ F2.0초광각 렌즈를 탑재했다. /연합뉴스

구직자 56% "취업청탁 생각 있다"

구직자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취업 청탁을 불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탁을 통해 취업하더라도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낙하산'이란 이유로 회사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26일 구직자 706명을 대상으로 '취업 청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5%가 '부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취업 청탁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로 '청탁도 능력'(30.1%·복수응답)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실력 입증에 자신 있음'(29.3%), '취업이 급해서'(25.8%),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14.5%), '일종의 가산점 제도' 등이 거론됐다.

실제로 응답자의 19.7%는 취업을 청탁한 경험이 있었다. 청탁 대상 1위와 2위는 각각 학연과 가족이었다. 취업 청탁 횟수는 평균 2회였다.

반면 취업 청탁 의향이 없는 응답자 43.5%는 그 이유로 '선의의 지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51.5%·복수응답), '편법이라서'(41.4%), '실력경쟁이 더 중요함'(28.3%), '상응하는 대가 따름'(16.3%)을 들었다.

/장윤희기자 unique@

엔비디아 게이머 위한 '쉴드 태블릿' 공개

가장 큰 매력 '확장성'

엔비디아가 게이머를 위한 태블릿 '쉴드 태블릿'(사진)을 공개했다.

엔비디아 코리아는 26일 서울 압구정 CGV청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쉴드 태블릿을 공개, 다음달 5일 국내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이용덕 대표는 "쉴드 태블릿은 게이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다"며 "태블릿 제품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 마켓 쉴드 허브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쉴드 태블릿은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제조한 태블릿PC로, 192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코어를 내장하고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 탑재 등



최적의 게임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태블릿PC의 성능을 좌우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64비트를 지원하는 2.2기가헤르츠(GHz) ARM 코어텍스(Cortex) A15 중앙처리장치(CPU) 및 엔비디아 테그라 K1 케플러 GPU로 구성돼 최적의 3차원 게임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테그라 K1은 다이렉트X12를 비롯해 오픈GL 4.4, 테셀레이션 등의 PC 게임 그래픽 기술도 지원, 에픽(Epic)의 최신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 4 기반 게임도 구동이 가능하다.

화면 크기는 8인치로 풀HD 해상도(1920x1080)를 지원하며, 램은 2기가바이트(GB), 내장메모리는 16GB, 카메라 화소는 전·후면 500만 화소,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롤리팝(L) 등이 탑재됐다.

그러나 엔비디아 쉴드 태블릿의 가장 큰 매력은 확장성이다.

PC에서 실행중인 게임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태블릿에서 실행할 수 있다. 또 태블릿에서 실행중인 게임을 TV와 연결해 넓은 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

즉 장소나 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최적의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양성운기자 ysw@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은 별로다? '옛말'

조합원 리스크 줄이기 위해 로얄동·로얄층으로

비로얄동과 비로얄층 일색이었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이 로얄동과 로얄층으로 옮겨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조합원이 좋은 동과 층을 선점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분양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미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를 줄이고자 일반분양에 공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조망권을 확보한 펜트하우스가 일반분양 몫으로 나오기도 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뉴타운 1-4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달 공급한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일반분양 655가구 중 90% 가까운 582가구를 5층 이상으로 배치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복층형 펜트하우스도 5가구 선보였다.



아크로타워 스퀘어 모델하우스를 찾은 수요자가 분양상담을 받고 있다.

조합원들이 무작위 추첨형식으로 동·호수를 배정한 뒤 나머지를 일반분양한 덕분에 다른 재개발 아파트에 비해 로얄층 배정 확률이 높았다.

그 결과 최고 7.29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순위 마감을 한 것은 물론, 펜트하우스 역시 일찌감치 주인을 찾았다. 분양한 지 한 달이 채 안된 현재 계약률은 70%를 훌쩍 뛰어 넘었다.

손병희 대림산업 분양소장은 "조합원만큼이나 일반분양 청약자들도 좋은 동·층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 같다"며 "연말까지 100% 계약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균 146대 1로 올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래미안 장전'도 마찬가지다. 부산 금정구 장전3구역을 재개발한 이 아파트는 총 1938가구 중 절반이 넘는 1384가구를 일반분양해 상대적으로 로얄층의 비율이 높았다. 벌써 6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됐던 서초우성3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도 일반분양된 49가구 중 41가구가 5층 이상에 배치됐다.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 역시 일반분양 213가구 가운데 112가구를 10층 이상이었다. 두 단지 모두 싸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100% 계약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해당 아파트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선호도 높은 동과 층이 많이 나올수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빨리 분양이 마무리돼야 미분양에 따른 추가분담금 리스크를 덜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공인중개사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규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500여 명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반대 2차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전국서 1만 가구 전매제한 풀려

다음 달 전국적으로 1만여 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법에서는 그린벨트 이외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는 수도권·지방 모두 1년, 민간택지는 수도권만 6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2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14개 단지, 1만89가구의 전매가 자유로워진다.

이 중 수도권이 8개 단지 5217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에서 3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풀린다.

우선 서울 송파권역인 C1-1블록 '송파 힐스테이트'와 C1-2블록 '위례 아이파크2차'의 거래가 각각 9일과 3일부터 가능해진다. 합법적 거래 가능 시기를 앞두고 현재 6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성남권역인 A2-10블록 '사랑으로 부영'은 12월 29일부터 전매가 허용된다. 위례에서 유일하게 순위 마감에 실패했지만 현재는 완판됐다. 4000만~7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지방에서는 6개 단지, 4872가구의 분양권 거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대구의 물량이 눈에 띈다.

세종시에서는 3-3생활권의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S-클래스 리버뷰'가 16일 이후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3-3생활권에는 세종시청, 교육청, 법원 등이 들어선다. 모아미래도는 800만~1000만원, 중흥S-클래스는 1000만~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현풍면·유가면 일대 조성 중인 테크노폴리스 A11블록 '진아리채'와 A15블록 '호반베르디움'이 각각 26일과 31일 이후 거래제한이 사라진다. 웃돈은 1000만~2000만원 내외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단지 인근에서 3년 이상 운영해온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옥기자

지방광역시 경매 낙찰가율 97.5%

2011년 6월 이후 최고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경매 열기가 수그러지는 반면 지방광역시의 경매 열기는 더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은 전통적인 비수기에도 신규 분양이 쏟아지며 주택 마련을 위한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지방광역시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 내 집 마련을 위해 경매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 기준으로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97.5%로 지난달(93.3%)보다 4.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낙찰가율은 2011년 6월(102.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 5대 광역시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지난해 4월(90.1%) 한차례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2월(90.3%), 4월(91.1%), 5월(91.5%), 7월(91.2%), 8월(91.4%), 9월(94.4%), 10월(93.3%) 등 이달까지 90%를 넘긴 달이 8차례나 나오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에서 이달 18일 경매에 부친 대구 북구 침산동 대한동아 침산2차 무지개아파트 134㎡는 21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감정가의 116%인 3억3666만6000원에 낙찰됐다. 최고 감정가보다도 4500만원 이상 비싼 값에 주인을 찾은 것이다.

3일 경매에 나온 대구 수성구 사월동 시지2차 사월보성타운 85㎡도 20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7%인 2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이달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보다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낙폭을 들여다보면 서울의 낙폭이 가장 크고 지방광역시의 낙폭이 가장 작아 낙찰가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률은 35.9%로 지난달보다 10.6%포인트 떨어져 올해 처음으로 40%선 밑으로 내려갔다.

지방광역시의 낙찰률은 52.5%로 지난달보다 3.1%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

이밖에 수도권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달보다 5.3%포인트 하락한 45.2%,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7.2%포인트 하락한 49.6%로 집계됐다.

이와는 반대로 아파트 경매시장의 평균응찰자 수는 서울이 8.2명, 수도권이 8.5명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각각 1.1명, 0.3명 늘었다. /김두탁기자 kimdt@

식음료업계 사내교육 힘쓰는 이유는?

전문인력 확보 통해 경쟁력 강화 도움 판단

최근 식·음료업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화된 시장 속에서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해당 업체들은 타 업계와의 협업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활을 건 전문 인력 확보에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그 대안이 '사내 직원 교육'이다.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은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와 재 방문률을 이끌어가는 일등 공신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2002년부터 '커피 마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바리스타가 세계적인 커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타벅스 직원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커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6개월 이상 ▲커피 지식 및 추출기구 학습 ▲독서 통신 ▲필기시험 ▲실습 교육 등 5단계를 통과해야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국내 식음료 업계 최초로 노동부 사내 검정 인증을 받았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의 직원 6241명 중 1200명이 커피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초창기부터 커피전문점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커피 맛에 초점을 두고 R&D 센터를 운영해왔다.



스타벅스의 '커피마스터 교육'(왼쪽)과 드롭탑의 R&D센터 전문인력교육. /각 사 제공

드롭탑 본사의 R&D 센터에서는 커피·푸드·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전문 강사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수업을 제공한다. 이론 교육 후 직영 점포에 배치돼 매장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특히 커피콩 감별사로 불리는 '큐그레이더(Q-Grader)'와 블렌딩 마스터를 비롯해 대학교수 출신의 베이커리, 푸드 교육 담당자, 해외 바리스타 경력을 갖춘 서비스 교육 담당자까지 전문 강사진들이 교육을 담당해 전문성까지 갖췄다.

오설록의 경우 티 소믈리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용 모바일 웹 '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웹은 오설록이 차(茶) 전문 브랜드로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티 소믈리에'에게 최상의 차(茶)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다. ▲오설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티 라이브러리' ▲차에 대한 지식 저장소인 '오설록 아카데미' ▲티소믈리에들의 커뮤니티 '티 소믈리에 룸'까지 크게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완성도 높은 디지털 환경을 구현한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백화점 명품, 온라인서 '날개'

서비스 강화·가격 경쟁력 전략 먹혀

백화점 매장에서 고가 명품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몰에서는 승승장구 중이다.

명품은 백화점에서만 구매한다는 인식이 바뀌면서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달간 온라인에서 해외 명품 판매량은 품목에 따라 많게는 세 자릿 수까지 증가했다.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 유통 업계도 해외 직소싱이나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전문관을 오픈하는 등 명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G마켓에는 NC백화점 명품관인 '럭셔리 갤러리'가 입점했다. 온라인 몰 입점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화점이 보유한 브랜드 상품 판매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백화점 매장에서 AS를 받을 수 있다.

G마켓은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난해 대비 명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구두·스니커즈(388%), 잡화(385%), 주얼리(367%) 등의 판매율이 큰 폭으로 신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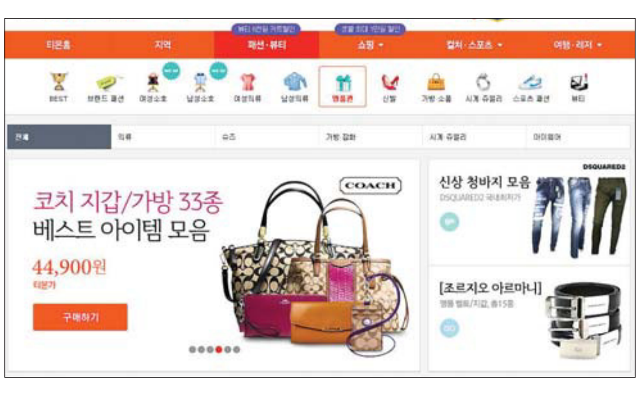
11번가도 디럭셔리 11을 열고 명품 사업을 키우고 있다. 이 회사는 현지에서 바로 들여오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하고 2년 무상 AS를 진행해 명품 온라인 판매의 단점을 보완했다.

옥션은 해외 쇼핑 수요가 늘자 올해 4월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최근 한 달간 수입 명품 판매가 지난달 보다 30% 늘었고, 카테고리를 신설한 4월보다는 110%나 뛰었다.

소셜커머스도 상품기획자(MD)가 현지 소싱하는 방식으로 명품 브랜드 상품을 공수해오고 있다.

명품관을 운영 중인 티몬(사진)은 패션담당 MD(상품기획자)가 상품 소싱을 위해 현지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 이 업체 전체 패션 매출 중 20%는 명품 상품이 차지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신뢰도를 높인 것이 매출 신장에 주효했다는 반응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따끈한 치즈 요리 잇따라 출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외식업계가 치즈를 활용한 메뉴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치즈 등갈비를 비롯해 퐁듀 햄버거 등 다양하다.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비타민이 풍부해 겨울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에 도움을 주며, 깊은 향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게 해준다.

이랜드 그룹에서 운영하는 '테루'에서는 다양하고 풍성한 치즈 토핑으로 무장한 '치즈 듬뿍 신메뉴' 3종을 출시했다.

도미노피자에서도 치즈의 깊은 맛을 강조한 '올댓 치즈 피자'를 내놨다.



아모제푸드에서 운영하는 퓨전 오므라이스 전문점 '오므토 토마토'는 태국산 삐끼누 고추로 만든 매콤한 특제소스를 곁들인 '핫 앤 치즈(HOT&CHEESE)' 오므라이스 2종(사진)을 선보였다.

1978년 일본에서 처음 문을 열어 현재 미국·중국·대만 등 137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한 세계적인 카레전문점인 코코이찌방야 국내 매장에서도 겨울 신메뉴로 '치즈&비프카레 우동정식' 등 다양한 우동 신메뉴를 전 점포에서 판매한다.

카페베네의 따뜻한 팬 디저트 6종은 하루 평균 전국에서 1만 3000여 개씩 총 20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무료증정 이벤트 풍성

5만원 이상 결제 때 천일염 증정
킹스베리·면도기·도서 경품 선물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을 위한 풍성한 무료증정 이벤트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강강술래는 본격적인 김장시즌을 맞아 12월 3일까지 전 매장(청담·홍대점 제외)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신규가입 멤버십 회원에게 국내산 갯벌천일염 3kg을 무료 증정한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영양간식 칠칠한우떡갈비(1.08kg·3만800원)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1.08kg·1만9600원), 통등심돈가스(2.16kg·2만3800원), 모짜렐라돈가스(2.16kg·2만8000원)를 2세트 사면 1세트를 추가 증정한다.

또 전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을 1병 주문하면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1병을 선물로 준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블루베리의 7배, 포도의 80배 이상 함유돼 피로회복과 노화방지에 좋은 명지대 산학협력단(BI기업 명지생활건강)의 '명지아로니아 킹스베리(1세트)'를 증정한다.

도루코리빙의 60년 전통날 연마기술이 가미돼 탄생한 '페이스세븐(PACE7)' 면도기도 준다. 7중날을 탑재했고 가드바에는 41개의 벌집형 모양 홀이 있어 면도시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아이템 선정과 정부지원 창업자금 대출제도 등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전략서 '작아도 크게 버는 골목가게의 비밀', 자신감을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분석하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는 '위험한 자신감' 등 도서출판 길벗의 추천 도서도 선물한다. /정영일기자 prms@

잘나가는 기업 '3M 광고'가 효자네~

남자·음악·메일로 소비자 감성 집중 공략

최근 기업들이 자사가 추구하는 콘셉트나 주력 제품을 '3M'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3M'이란 남자(Man)·음악(Music)·메일(Mail)을 의미하며, 요즘 뜨는 브랜드 광고들은 이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헬스&뷰티 브랜드에서 남성 모델을 기용하거나,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신 펀(Fun)한 광고 음악을 들려주는 아웃도어 브랜드, 영상 메일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이동통신 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 마케팅 담당자는 "이제 제품을 중심으로 한 광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요소와 메시지를 결합, 소비자 스스로가 브랜드의 콘셉트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남성 모델을 기용하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리브영은 김우빈을 앞세워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메시지를 던져 화제가 되고 있다. 광고 역시 남성편과 여성편 2가지 버전(사진)을 동시에 공개했다.



남성편에서는 "신경 써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뿌리고…. 이 정도면 됐다 싶지? 그럼 넌 아직 멀었다"라며 더 멋있어지고 싶은 그루밍족의 심리를 자극한다. 여성편은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어제보다 더 예쁘네"라는 메시지로 여성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

컬럼비아는 '터보다운'을 출시하며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주력 제품을 어필하고 있다.

컬럼비아는 매 시즌 인상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멘트로 반전 매력의 TV CF를 선보였지만, 이번엔 독특한 터보다운 송으로 소비자를 매료시키고 있다. 광고 내내 흘러나오는 "추울 땐 터보다운 ~ 후후후~ 컬럼비아 터보다운 후후후~~"라는 멘트는 특유의 리듬감이 더해져 광고가 끝난 뒤에도 흥얼거리게 만든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100년의 편지' 캠페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하는 진심과 감동의 편지라는 콘셉트로 주목 받고 있다. 이는 빠름에 익숙한 디지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IT 기술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더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바일로 감동의 마음을 전하는 캠페인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타투 선글라스, 상륙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CGV 11층 프라이빗시네마에서 열린 선글라스 브랜드 '타투 아이웨어' 론칭 행사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미·에프엑스 빅토리아·성유리. 일본에서 시작된 타투 아이웨어는 장인의 섬세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 핸드 메이드 제품으로 유명하다. /타투 아이웨어 제공

디테일 메이크업 각광

슬림 브러시 마스카라·삼각 립스틱 등 눈길

눈썹의 컬링, 입술 색상 등 작은 차이가 얼굴 전체의 인상을 결정지으면서 부위별 디테일 메이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뷰티업체들이 슬림 브러시를 장착한 마스카라, 얇은 립스틱 등 세밀한 화장을 도와주는 아이템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 속눈썹은 약 6㎜. 이는 서양인보다 약 3분의 1 가량 짧은 길이로 깔끔한 속눈썹 메이크업이 쉽지 않은 조건이다. 애경 루나는 일반 마스카라의 브러시 길이인 8㎜보다 짧은 2.5㎜의 솜털 브러시가 탑재된 '익스트림 스키니 마스카라'를 내놨다.

짧은 브러시를 활용해 평소 바르기 힘든 눈 앞머리·눈 아래 속눈썹도 정교하게 바를 수 있고, 숨어 있는 속눈썹도 한올한올 선명하고 말끔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립스틱을 바르다 보면 입술산과 입꼬리 연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VDL의 '엑스퍼트 컬러 립 큐브 이엑스 SPF10'은 입술산, 입꼬리 등을 립 브러시 없이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얇게 디자인됐다. 제품 단면이 삼각형 모양이라 접촉면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연말 기다렸다"…유통가, 특수 채비 분주

파티용품·여행 상품 기획전 등 잇따라

연말 특수를 맞아 유통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인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념일이 있고 이 시기 소비가 연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통 업계는 매해 연말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도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수요에 맞춰 기획전 등 행사를 기획했다.

롯데닷컴은 파티가 많은 연말을 고려해 최근 한 달간 매출이 지난해 보다 25% 가량 증가한 미니 백을 비롯해 인기 잡화 품목을 모아 '2014 윈터 어메이징 찬스' 기획전을 다음 달 7일까지 연다.

또 연말 예약이 몰리는 숙박·외식 관련 상품도 미리 선보였다. 실제 온라인몰에서 이 같은 무형상품 카테고리는 연말이 성수기다. 11번가의 경우 11월(16%)과 12월(17%)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평균(8%) 보다 2배 높다.

쿠팡도 '특급 호텔 기획전'을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항공권 최저가 대방출' 기획전을 12월 19일까지 열고 전 세계 28개 주요 항공사 별 특가 요금의 최대 20%까지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편의점도 연말 시즌을 위해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세븐일레븐은 여성 고객을 위한 네코미미 헤어밴드와 헬로키티 텀블러 등을 지난 2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네코미미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연말 파티 용품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키티 텀블러는 뚜껑이 헬로키티 얼굴로 만들어져 귀여움을 부각시킨 상품이다.



미니스톱은 오는 28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주문 예약을 받는다. /김수정기자 ksj0215@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패키지 선봬

'미생' 열풍이 불면서 피곤에 지친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을 응원하는 호텔 패키지가 나왔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은 최근 직장인들의 힐링을 위한 이색 패키지 '힘내라, 김대리!'를 선보였다.

직장인을 위한 '힐링박스'가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박스에는 현실감 있는 스토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생 1~2권과 건강음료·비타민 등 다양한 아이템이 들어있다.

또 패키지를 이용하면 편안한 객실에서의 1박과 함께 피트니스센터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외식·쇼핑·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타임스퀘어몰 내의 일부 브랜드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습윤밴드 올바른 사용법

상처관리인식 자리잡으며 사용 늘어



이제까지는 상처가 생겼을 때 무조건 반창고를 붙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습윤환경 조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상처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한국먼디파마의 '메디폼'으로 대표되는 습윤밴드가 상처치료의 선두주자로 등장하면서 습윤밴드를 올바르게 사용할 필요가 커졌다.

먼저 습윤밴드의 역할을 알아야 한다. 습윤밴드는 습윤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런 환경은 적절한 산성도와 산소 농도를 유지시켜 효율적인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촉촉한 상태에서는 수분 증발이 감소하고 촉촉한 상처 표면을 따라 피부재생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처가 보다 빠르게 치유된다.

진물이 밖으로 흐르지 않고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3~4일마다 습윤밴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 진물이 흡수된 정도도 관찰 가능해 밴드 면적의 약 90%까지 진물이 흡수되면 밴드를 교체해야 한다.

이와함께 상처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습윤밴드를 사용해야 한다. 깊고 진물 나는 상처에는 폼 타입, 가벼운 상처에는 하이드로콜로이드 타입, 방수가 필요한 상처에는 바르는 액상 타입의 밴드를 써야 한다.

물론 습윤밴드를 붙이기 전 생리식염수 등으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상처 크기보다 조금 큰 크기의 밴드를 붙여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게다가 습윤밴드를 사용하는 중간에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황재용기자

지친 직장인 도와주는 건강상식

규칙적인 생활, 음주 줄여야…겨울철엔 안구건조증 조심



'미생'. /CJ E&M 제공

'미생' 열풍이다. 직장인은 물론 미생을 보며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의 일상에까지 미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과도한 업무로 직장인들의 현실은 힘들기만 하다. 이에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도 알아야 하는 직장인 건강상식을 알아봤다.

먼저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적절한 수면시간은 7~8시간 정도다. 수면을 줄여 밤에 다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면을 취한 뒤 낮에 최대한의 능률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10~20분 정도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또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하며 일몰 전후로 30~40분 정도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취침·기상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장인 최고의 적인 알코올을 조심해야 한다. 과음이 이어지면 지방간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알코올성 간염이나 간경변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적절한 음주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물과 치즈·두부·고기 등의 고단백질 안주를 많이 먹어야 한다. 게다가 술을 마신 후 습관적으로 토하는 습관도 피해야 하며 위스키 등의 증류주가 맥주 등의 발효주에 비해 흡수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겨울에는 안구건조증을 조심해야 한다. 장시간 쉬지 않고 눈을 많이 사용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과도한 모니터 작업과 난방기의 장시간 사용이 원인이다.

주민경 한림대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직장인들은 축적된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음주를 피할 수 없는 연말연시에는 적절한 수면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반영구 필러시장 급속 팽창

티알엠코리아, '아테콜' 개발자 렘펠 박사 간담회

안티에이징 수요가 늘면서 반영구 필러 시장도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티알엠코리아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필러 국내 도입 20년, 반영구 필러 시장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반영구 필러 '아테콜' 개발자인 렘펠 박사(Dr. Gottfried Lemperle) 초청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티알엠코리아에 따르면 안티에이징 시술의 대표격인 필러 시장의 규모는 2014년 현재 약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11년 43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년 동안 2.5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특히 시장의 수요가 높지 않았던 반영구 필러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추세다. 반영구 필러 시장은 2012년 140억원대에서 2014년에는 270억원으로 3년간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반영구 필러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다른 필러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장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히알루론산 필러를 잘못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보도되면서 반영구 필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경향도 있다.

다만 반영구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흡수성 필러와 달리 충전물이 뼈 위에서 장기간 인체조직과 붙어있기 때문에 시술과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렘펠 박사는 "아테콜로 대표되는 반영구 필러는 오랜 기간 그 안정성과 효과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술하는 의사의 임상 숙련도와 전문성이 중요하며 환자 역시 무분별한 시술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테콜은 고분자물질인 'PMMA(인조 뼈 성분)' 제제를 이용한 반영구 필러다.

/황재용기자

힘찬병원 '방문간호 서비스' 10만례

왕진 통한 의료…하루에 60명 이상 돌봐



힘찬병원이 수술 환자의 가정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 시행 10만례를 달성했다.

서비스는 관절에 질환이 있는 환자가 수술 후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병원에서 마련한 환자 서비스 제도다.

병원은 지난 2002년 11월 병원 개원과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방문 간호팀은 매일 전국을 돌며 60여 명의 환자들을 찾아간다. 특히 이들은 환자들의 회복과 재활훈련은 물론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풀어주고 심리상담까지 진행한다.

또 병원은 10만례 달성을 기념해 최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제주도 환자를 방문해 진료를 실시했다.

한편 병원은 이 서비스 외에도 농협중앙회 등과 협약을 맺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나도 턱관절 질환 있나?

'테마가 있는 치과' 이상민 원장 팁



치통과 함께 찾아오는 두통, 입을 벌릴 때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 턱이 아프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현상 등은 모두 턱관절 질환의 증상이다. 이름조차 생소한 턱관절 질환에 대한 얘기를 이상민(사진) 테마가 있는 치과 노원점 대표원장에게 들어봤다.

사람의 위턱은 두개골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반면 아래턱은 관절과 근육·인대 등을 통해 움직일 수 있다. 그중 관절은 양쪽에 하나씩 귀에서 약 1㎝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밥을 먹거나 말을 할 때마다 관여해 턱을 움직이게 한다.

하지만 부정교합이나 턱에 안 좋은 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관절 등에 이상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한다.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질환이 발병하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가 1개 이상의 턱관절 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또 위와 같은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나타나거나 턱 주의의 통증이 지속되면 턱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진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주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며 구강 내 장치 등을 통해 상태를 호전시켜야 한다.

이 원장은 "자가진단을 통해 턱관절 질환의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더라도 질환을 예방하는데 힘써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물리·약물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보톡스나 장치를 이용한 전문적인 치료도 가능해 턱에 이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용기자

독립영화 스타 류혜영 충무로 기대주 되다



류혜영(23)은 독립영화계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배우다. 2007년 단편영화 '여고생이다'로 데뷔했다. 2011년 옴니버스 영화 '애정만세' 중 양익준 감독이 연출한 단편 '미성년'에서 거침없고 솔직한 캐릭터로 주목 받았다. 이후 '졸업여행' '숲' 등의 단편영화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지난해 개봉한 '잉투기'는 류혜영의 연기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 첫 장편영화인 '잉투기'에서 류혜영은 인터넷 '먹방' BJ로 활약하는 여고생 영자를 연기했다. 겉으로는 유쾌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 10대만의 외로움이 녹아있는 캐릭터였다. 류혜영은 당돌하면서도 솔직한 연기로 독보적인 20대 여배우의 등장을 알렸다.

배우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쉽게 오지 않을 기회였다. 그러나 류혜영은 선불리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배우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이 일이 진짜 가장 재미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류혜영으로서' 생활이 지루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미국을 잠시 다녀왔어요. 주변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할 때 왜 미국으로 가느냐'고 걱정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때야말로 타지에서 겪을 고통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다시 돌아와도 작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고요."

미국에 도착한 뒤 아쉬움과 불안함에 며칠 동안 후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내 주어진 상황을 즐기자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기적 같이 일이 일어났다. '잉투기'를 눈여겨본 이해준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소름 끼쳤어요. 미국에 가도 누군가 나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됐으니까요. 신기하고도 두려웠죠(웃음)." 그렇게 류혜영의 차기작은 '나의 독재자'로 결정됐다. 본격적인 첫 상업영화였다.

'나의 독재자'에서 류혜영은 영화 후반부인 1994년의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스스로를 독재자 김일성이라고 믿는 아버지 성근(설경구)을 외면한 채 백수건달로 살아가는 태식(박해일)을 사랑하는 여인 여정 역을 맡았다. "사랑스럽고 당돌한데다 주관도 뚜렷하면서 아픔이 있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찬 성격은 전작 '잉투기'의 영자와도 닮았다. 그러나 류혜영은 여정을 통해 보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것도 잘 한다"는 생각으로 여정에게 빠져들었다. 물론 여정이 마냥 밝고 사랑스럽게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 순간 마음의 아픔을 드러내는 장면도 있다. 태식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는 신이다.

"깊이 있는 감정을 연기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밝은 캐릭터만 연기했지만 사실 제 이면에는 어두운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소중하고 좋은 신이었어요. 게다가 마지막 촬영이었거든요. 욕심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류혜영은 '나의 독재자'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펼쳐 보였다.

선배 배우들과의 작업은 좋은 경험이 됐다. 특히 '잉투기' 개봉 당시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언급했던 박해일과의 작업은 "신기하고도 감사"했다. "선배님이 그동안 만난 여배우들 중 가장 많이 산책한 배우가 저래요(웃음). 그만큼 편안했어요. 선배님과 산책을 하다 보니 여정이 태식을 좋아하는 마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요." 설경구의 연기를 지켜보면서는 배우로서의 "이상형이자 롤모델"로 삼고 싶다는 벅찬 마음도 들었다.

'나의 독재자'의 촬영을 마친 뒤 류혜영은 처음으로 소속사에 들어갔다. 최민식·설경구·이정재 등이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다. 독립영화 중심으로 활동했던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걱정도 생긴다. 그러나 류혜영은 "좋은 배우들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며 "작품 선택에 제약은 없다"고 말하며 밝게 웃었다.

'잉투기' 당시 느꼈던 고민들은 이제 단단하게 여물었다. '나의 독재자'까지 마친 류혜영은 지금 자신의 건강함을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연기적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줄 새로운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잉투기'를 보고 이해준 감독님이 저를 찾아주신 것처럼 '나의 독재자'로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찾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한 자신감일까요? 하지만 말만 하면 다 될지도 몰라요. 두려움과 자신감이 공존하는 저, 아주 매력적이죠?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상곤)·디자인/최송이

"두려움과 자신감 공존하는 저, 매력적이죠?"



지난해 '잉투기'로 주목 받은 신예
'나의 독재자'로 첫 상업영화 도전
"몸·마음 힘들어도 보람 느끼고파"

concert review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겨울 문턱서 따스함을 노래하다

■제이슨 므라즈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리는 듯 싸늘한 바람이 불던 25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수 제이슨 므라즈(37)의 내한공연장에는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므라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난 7월 발매한 정규 5집 '예스' 발매 기념 콘서트 '언 어쿠스틱 이브닝 위드 제이슨 므라즈 앤드 레이닝 제인'을 열었다.

이날 오프닝 무대는 4인조 여성 포크록 밴드 레이닝 제인이 맡았다. 이들은 '오 송' '스토밍' '어퍼시트 오브 블루'를 부른 뒤 "미스터 제이슨 므라즈와 함께 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를 소개했다.

트레이드 마크인 페도라 모자를 쓰고 기타를 둘러 맨 채 등장한 므라즈는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이날 공연에서 므라즈는 앞서 내한 공연만 일곱 차례를 치른 '한국 관객 베테랑'다운 모습을 보였다.

수많은 해외 스타들이 한국을 찾지만 므라즈 만큼 한국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수는 보기 드물다. 므라즈는 공연 내내 "같이 불러요" "사랑해요" 등 어눌한 발음이지만 애정이 묻어나는 한국말로 관객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첫 번째 곡은 '송 포 어 프렌드'와 '긱 인 더 핑크'를 합친 '송 포 어 긱'이었다. 감성을 어루만지는 므라즈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다 비트가 빠른 '긱 인 더 핑크'로 분위기가 전환되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이어 '라이프 이즈 원더풀' '에브리웨어'를 연달아 노래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히트곡 '럭키'가 흘러나오자 객석은 야광 응원봉으로 넘실거렸다. 레이닝 제인의 드러머 모나 타바콜리는 야광봉을 보고 "유니콘 같다"고 표현했다. 므라즈는 관객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기 위에 차례로 왼편과 오른편 객석에 다가가 노래했다.

이날 므라즈와 레이닝 제인은 곡이 바뀔 때마다 어쿠스틱 기타·베이스·첼로·우쿨렐레·실로폰·드럼 등 다양한 악기를 바꿔 들었다. 다섯 명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사운드는 커다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 뒤로 펼쳐지는 영상도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넓고 푸른 대지 등 180분의 공연 시간 내내 펼쳐진 영상은 자연을 사랑하는 므라즈의 세계관을 반영했다.

므라즈는 '바텀 오브 더 시'를 부르기에 앞서 "뒤에 보이는 영상은 모나와 함께 남극에 여행 가서 직접 찍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 속 바다사자를 가리키며 "내 고양이"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영상 속 므라즈와 모나는 남극을 배경으로 '바텀 오브 더 시'를 불렀다. 영상에 소리는 없었지만 무대 위에서 라이브로 펼쳐지는 노래와 영상 속 두 사람의 입 모양이 완벽히 맞아 떨어지며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됐다.

약 20분의 휴식 시간 뒤 공연은 다시 막이 올랐다. 므라즈는 한국말로 "다시 봐서 좋아요"고 말했다. 2부에서 므라즈는 멘트를 줄이고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러브 섬원' '플레인' '93 밀리언 마일즈' 등을 연이어 불렀고 객석에서는 이따금씩 외마디 탄성이 이어졌다. 공연이 후반부를 향해 갈 때쯤 '아임 유어스'가 시작됐다. 므라즈는 같이 부르자고 제안했고 관객은 그와 함께 노래했다. 므라즈와 3000여 명 관객이 하나된 순간이었다.

마지막 무대는 '아이 원트 기브 업'과 '잇츠 소 하드 투 세이 굿바이 투 예스터데이'였다. 내한 공연 투어의 마지막인 이날 공연이 끝나가자 므라즈는 '셀카봉'을 꺼내 들었고 공연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므라즈는 이날 무대를 함께한 레이닝 제인 멤버들과 한 명씩 셀카를 찍으며 공연을 추억했다. 관객들의 앙코르 요청이 쏟아지자 므라즈는 한국어로 "다시 만나요"라고 약속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신해철 기리는 추모 공연 이어진다

지난 10월 2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신해철(사진)을 위해 동료 가수들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 중이다.

그룹 넥스트 유나이티드(이하 넥스트 Utd.)는 내달 27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민물장어의 꿈'이라는 부제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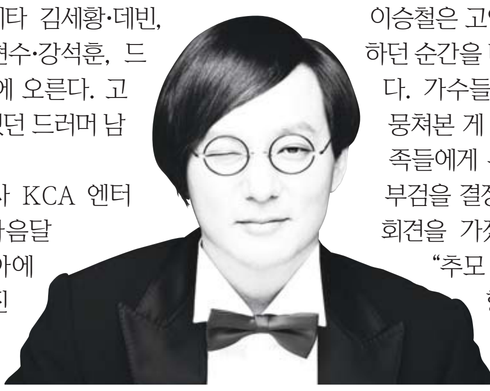
이날 공연은 6년 만에 재결성한 넥스트 Utd.의 멤버들과 역대 넥스트 멤버들이 모두 모여 고인을 기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원년 멤버인 기타리스트 정기송, 신해철의 제자 노종헌, 드러머 이수용, 베이스 제이드, 키보드 김구호, 넥스트 최초로 신해철과 트윈보컬을 맡았던 이현섭(이상 넥스트 Udt.) 등이 참여한다. 또한 넥스트로 활동했던 베이스 김영석·쌩, 기타 김세황·데빈, 기보트 김동혁·지현수·강석훈, 드럼 신지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고인과 절친한 동료였던 드러머 남궁연도 함께한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음달 14일 안성 유토피아에서 고인의 49재가 진행된 후 이튿날에 고인의 유작 중 한 곡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 콘서트에서 첫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고인의 공연 영상과 유년시절의 모습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가수 이승철도 고인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승철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해철 추모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는 내년 5월로 보고 있으며 고인과 친분이 있던 가수들이 출연하길 바란다. 5~6시간에 걸친 대규모 공연이 될 것 같다"며 "슬퍼하기 보다는 그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보내줄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승철은 고인의 시신 부검 요청을 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매우 긴박했다. 가수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 뭉쳐본 게 처음인 것 같다"며 "가족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 부검을 결정하게 됐고 급히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추모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년 초에 다시 이야기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민기자



'힙합 부부' 타이거JK·윤미래 레이블 설립

동료 비제이와 함께 대중 문화 전반 영역서 활동

힙합 뮤지션 타이거JK·윤미래·비지가 음악 레이블 필굿 뮤직을 설립했다.

필굿 뮤직은 26일 "앞으로 힙합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장르로 업계를 선도하고 대중과 호흡하는 음악을 만들겠다"며 "음악과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굿 뮤직은 가수뿐만 아니라 DJ·아트디렉터·비주얼디렉터와 손잡고 대중문화 전 영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 레이블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앞서 타이거JK·윤미래·비지는 작년 1월 그룹 MFBTY를 결성하고 '스위트 드림'을 발표했다. 당시 이 노래는 국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고 미국 음악 전문 사이트 빌보드를 통해 다뤄지며 주목 받았다.

앞으로 필굿 뮤직을 이끌어 갈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는 미국 힙합 전문지 'XXL'이 발표한 '꼭 알아야 할 한국의 래퍼 15인'에 나란히 올랐다. 국내 최고 여성 래퍼로 꼽히는 윤미래는 미국 MTV 이기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여성 래퍼 12인'에도 선정됐다.

필굿 뮤직은 다음달 소속 아티스트의 신곡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Section 1. 칸의 선택
마미 • 맵 투 더 스타 • 리바이어던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투 데이즈 원 나잇 • 화이트 갓
Section 2. 거장의 새로운 이야기
나의 사적인 여자친구 • 이별까지 7일 • 무드 인디고
2014 씨네큐브 예술영화 프리미어 페스티벌
11.27. Thu ~ 12.3. Wed
Section 3. 이야기의 시작, 모티브
갈증 • 꾸뻬씨의 행복여행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Section 4. 낭만의 도시 파리로의 여행
파리 폴리 • 질투 • 엘리제궁의 요리사
주최 • 씨네큐브 ㈜티캐스트 cinecube tcast 후원 • 이채널 스크린 드라마큐브 채널뷰 패션앤 씨네프 흥국생명보험㈜ www.icinecube.com • www.facebook.com/cinecube • www.twitter.com/iCinecube
예술영화관의 대표브랜드 씨네큐브는 문화콘텐츠의 선두주자 티캐스트가 운영하고 흥국생명이 지원합니다.

'왕의 얼굴' 시청률 상승 자신

"시청자와 감정 공유하는 힘 있는 작품"
서인국·이성재 서로에게 고마움 표현



배우 서인국(사진 왼쪽)·이성재(오른쪽)가 KBS2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시청률 상승을 자신했다.

지난주에 방송된 '왕의 얼굴' 2회는 시청률 6.1%(닐슨코리아·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전회보다 1% 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동시간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경기도 안성 일죽세트장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이성재는 "3~4부 시청률은 오를 거 같다"며 "대본 자체는 2부가 1부보다 더 재미있었는데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청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었다. 시청률을 위해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지금처럼 즐기며 촬영한다면 시청률은 보너스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인국도 "현장에서는 우리대로 열심히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왕의 얼굴'은 시청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재는 작품에서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를 연기한다.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린 탓에 아들을 질투하는 예민한 성격의 왕을 표현하고 있다. 권력 암투를 이겨내고 왕이 되는 세자 광해군으로 분한 서인국은 데뷔 후 처음 사극에 도전한다.

첫 방송 후 주변 반응을 묻자 서인국은 "'어땠냐' '잘 봤냐'라고 쑥쓰러워서 이렇게 물어보지 못한다"며 "현장에서 선배들은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힘이 난다"고 답했다.

극중에서 서인국과 이성재는 대립하는 관계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냈다.

서인국은 "이성재 선배는 카메라 밖에서도 상대 배우를 위해 똑같이 감정을 표출하면서 연기한다"고 했다. 이성재는 "당연한 건데 자꾸 이야기 하니까 부끄럽다"며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 감정도 잘 나와야 연기가 좋아진다"고 답했다.

이에 서인국은 "이성재와 함께 출연했던 MBC 드라마 '아들녀석들' 이후로 '잘 배워 왔다'는 칭찬을 들은 적 있다"고 덧붙였다.

3회 방송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해가 관상가를 뽑는 시험에 응시하는 이야기가 미리 공개됐다. 서인국은 광해군 신분을 숨기기 위해 더벅머리에 한쪽 팔이 없는 분장을 했다는 후문이다.

서인국은 "광해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인생의 캐릭터를 만났다. 광해의 감정을 알아가면서 스스로도 흥미롭고 기대가 된다. 더벅머리 분장도 정말 못생겼다. 정말 못생기게 나왔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왕의 얼굴'은 광해군의 성장과 김가희(조윤희)를 두고 삼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아버지 선조와 아들 광해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팩션 사극이다.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달인' 김병만 중국 개그 프로에

개그맨 김병만이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 '개그생활대폭소'에 출연한다.

KBS2 '개그콘서트'는 최근 중국 미디어 그룹인 상하이동방미디어유한공사 산하 채널 상하이 동방위성TV와 공동으로 중국판 '개그콘서트'를 제작할 것을 알렸다. 이에 김병만은 '개그생활대폭소'에서 코너 '달인'을 중국 현지 개그코드에 맞게 기획하고 직접 출연하게 됐다.

김병만은 '개그콘서트'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장수 코너 '달인'의 주축 멤버로 활약한 바 있다. 지난주 중국에서의 첫 녹화에 참여해 '격파의 달인'과 '트램플린의 달인'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국 현지 개그맨들과 좋은 팀워크로 촬영을 마쳤다. 중국 현지 인터뷰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 '몸 쓰는 개그맨'으로 자신만의 예능을 만들어 온 김병만은 '개그생활대폭소'를 통해 한국 개그맨 최초로 해외판 고정 코너에 출연해 활동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다.

'개그생활대폭소'는 내년 초 동방위성TV로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손은서 '내 마음 반짝반짝' 합류



배우 손은서(사진)가 SBS 새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에 합류한다.

손은서는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 '운탁 치킨'의 냉철한 대표 천운탁(배수빈)의 첫째 여동생 천금비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천금비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아쉬울 것 없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천운탁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물이다. '운탁 치킨'의 라이벌 '진심원조 통닭'의 둘째 딸 이순수(이태임)와 경쟁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다.

손은서는 최근 MBC 드라마 페스티벌 '형영당 일기'를 통해 인상 깊은 연기를 했다. '내 마음 반짝반짝'에서는 어떤 연기를 보여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오랜만에 길게 호흡하는 드라마로 시청자를 만나 설렌다"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내 마음 반짝반짝'은 '며느리 전성시대' '솔약국집 아들들' '사랑을 믿어요' '결혼의 여신'을 집필한 조정선 작가와 '아내의 유혹' 오세강 감독이 함께 만든다. 서민의 음식인 치킨으로 얽힌 두 집안의 성공과 성장을 담는다. '미녀의 탄생' 후속작으로 내년 1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전수경 '원녀일기' 카메오 활약
드라마 '마마' 조감독과 의리 출연



배우 전수경(사진)이 MBC 드라마 페스티벌 '원녀일기'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전수경의 소속사 메이딘 엔터테인먼트는 26일 "전수경이 최근 종영한 MBC 주말드라마 '마마'에서 만난 조감독과의 의리로 단막극 출연을 흔쾌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수경은 현재 뮤지컬 '시카고'와 '라카지' 공연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전수경은 이번 작품에서 춘향의 엄마 월매 역을 맡았다. 짧은 분량이지만 맛깔나는 연기력과 특유의 노련미로 함께 출연하는 선후배·동료 배우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전수경은 "오랜만에 단막극을 촬영하게 돼서 무척 즐거웠다. 좋은 작품에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했고 조금이라도 작품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슬기·서이안·채수빈·오상진 등이 출연하는 '원녀일기'는 조선시대 노처녀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청춘멜로사극으로 콩쥐·춘향·심청 등 익숙한 고전 주인공들이 등장해 극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드라마는 30일 밤 12시 5분 MBC를 통해 방송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아름다운 이야기 따뜻한 영화"

김혜자·강혜정 '개를 훔치는…'으로 스크린 컴백



26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제작보고회에 배우 김혜자(오른쪽)와 강혜정(왼쪽), 그리고 아역배우 이레가 참석해 포토타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 동안 스크린에서 만날 수 없었던 배우들이 오랜만에 한 작품으로 스크린을 찾는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감독 김성호)으로 뭉친 김혜자와 강혜정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열 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다. 미국 여류작가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이 원작이다.

26일 오전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는 김성호 감독과 주연 배우 김혜자·강혜정·이천희·이레가 참석해 영화에 얽힌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김혜자와 강혜정에게 이번 영화는 5년 만의 영화다. 지난 2009년 개봉한 '마더'와 '걸프렌즈' 이후 첫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서 김혜자는 갤러리 레스토랑 마르셀과 개 월리의 주인인 노부인을 연기했다. 그는 "'마더'에 출연한 뒤 작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다음 작품을 하기 힘들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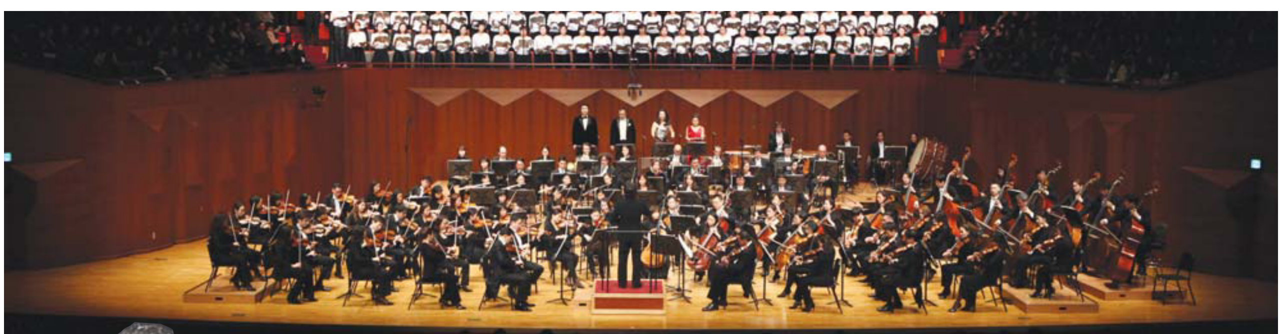
오랜 고민 끝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스토리 때문이었다. 김혜자는 "스토리가 아름다웠다. 그리고 사람 마음을 순하게 만든다는 점이 좋았다"며 "보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안 먹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성장하게 하는 영화"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강혜정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이하루의 엄마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도 엄마 역을 맡아 아역배우 이레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오랜만의 영화 작업이라 영광스러웠다. 감독님이 아이 엄마 역할이라는 저의 또 다른 가능성에 도전해준 것도 감사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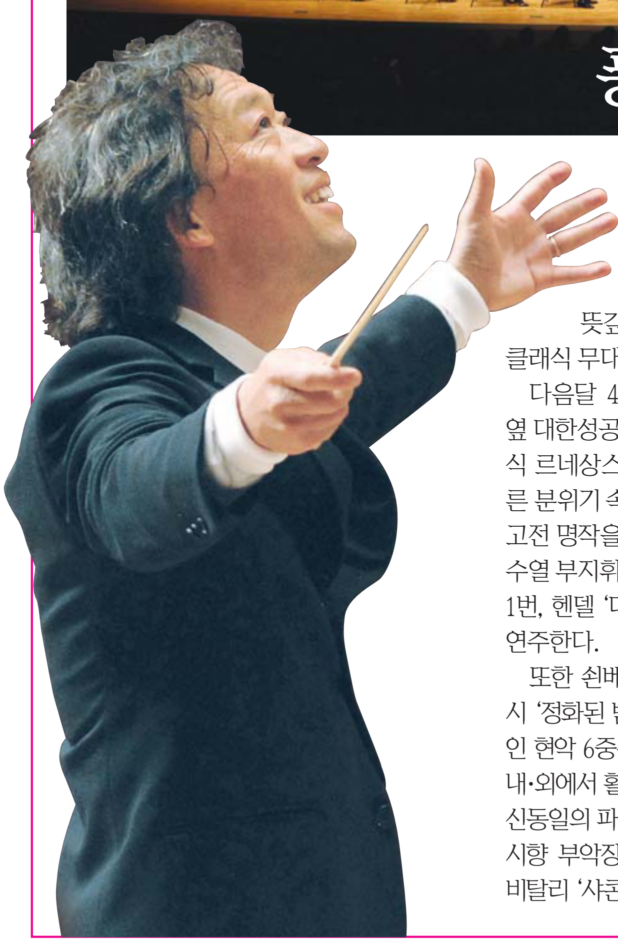
이어 "처음 영화를 제의를 받았을 때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했다"며 "어느 순간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그런데 김혜자 선생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영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해서 더 고민하지 않고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화에는 배우 최민수도 출연한다. 8년 만의 영화다. 당초 제작보고회 참석 예정이었으나 드라마 '오만과 편견' 촬영 때문에 이날 행사에 함께하지 못했다.

한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다음달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풍성한 연말 클래식 무대



서울시향 12월 다양한 공연 마련

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박현정)이 12월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는 다양한 클래식 무대를 선보인다.

다음달 4일 오후 7시30분에는 덕수궁 옆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클래식 르네상스'를 개최한다. 아늑하고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하이든, 헨델, 비탈리 등 고전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최수열 부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이든 교향곡 1번, 헨델 '대관식 찬가' 중 일부를 발췌해 연주한다.

또한 쇤베르크가 리하르트 데멜의 연작시 '정화된 밤'에 현대적 어법으로 곡을 붙인 현악 6중주 '정화된 밤'도 들려준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의 파이프 오르간 반주와 함께 서울시향 부악장 신아라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비탈리 '샤콘느'도 놓칠 수 없는 무대다.

다음달 12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는 '정명훈과 지안 왕' 공연을 연다. 지안 왕은 10세 나이에 다큐멘터리 '모택동에서 모차르트까지: 중국의 아이작 스턴'에 출연했으며 한국에도 친숙한 첼리스트다.

이번 무대에서 지안 왕은 정명훈(사진) 예술감독의 지휘로 하이든 '첼로 협주곡 1번' 외에 첼로가 돈키호테 역할로 등장하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돈키호테'를 연주한다. 전반부 프로그램으로는 짙은 우수와 비극미가 돋보이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연주한다.

다음달 26일과 27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주한다. 정명훈 예술감독과 함께 소프라노 마리아 루이자 보르시,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김정훈, 베이스 박종민과 국립합창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이 무대를 채운다. /장병호기자



안젤리나 졸리 감독 영화 개봉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은 영화 '언브로큰'이 다음달 31일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언브로큰'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바탕으로 극적인 삶을 살았던 실존 인물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담았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로 참가한 그는 이후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투기 고장으로 추락해 태평양에서 47일을 표류했다. 이어 일본 포로수용소로 끌려가 850일 동안 전쟁포로가 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

'디스 이즈 잉글랜드' '300: 제국의 부활'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잭 오코넬이 주인공 루이를 연기했다. '어바웃 타임'의 돔놀 글리슨, '인사이드 르윈'의 가렛 헤드룬드 등 할리우드의 차세대 스타들도 출연했다.

'언브로큰'의 각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인사이드 르윈' 등의 작품으로 잘 알려진 코엔 형제 감독이 맡았다. '색, 계' '킹스 스피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음악감독 알렉상드르 데스플라도 영화에 참여했다. /장병호기자

'상의원' '기술자들' 흥행 대결

영화 '상의원'이 다음달 24일 개봉을 확정했다. '기술자들'과 흥행 맞대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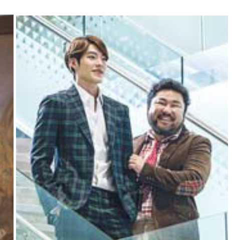
'상의원'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복을 만들던 상의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아름다움을 향한 대결을 그리는 작품이다.

충무로 대표 배우인 한석규·고수와 새로운 대세로 자리잡은 유연석·박신혜가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석규와 고수는 조선 왕실 기관 상의원의 최고 어침장 조돌석 역과 천재 디자이너 이공진 역을 맡았다. 유연석, 박신혜는 왕과 왕비로 호흡을 맞췄다.

'상의원'과 같은 날에는 '기술자들'이 개봉한다. '기술자들'은 인천세관에 숨겨진 1500억을 제한시간 40분 안에 털기 위해 모인 범죄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김우빈·이현우 등 청춘 스타들과 고창석·김영철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극과 범죄 영화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영화들로 크리스마스 극장가가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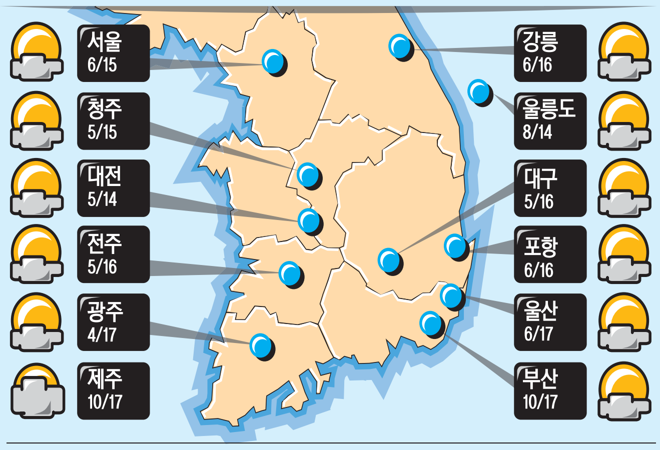

상의원


기술자들

날씨

11/27 木 일출시각 07:24 일몰시각 17: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기초대사량이 증가하는 겨울에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B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 소홀하기 쉬운 비타민D 섭취를 위해 유제품·계란 등도 챙겨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4			
5		1						4
		6			5	8	1	
	1				6	9		8
	7			5			4	
9		3	4				7	
	5	8	3			4		
1						3		9
			5	1				

	4							9
9	6				4	5	8	
2			9	8		3		
			2	9		8		
		2		7	6			
		9		4	7			3
	3	1	5				4	7
5							9	

스도쿠 정답

2	8	9	1	3	4	7	6	5
5	3	1	8	6	7	2	9	4
7	4	6	2	9	5	8	1	3
4	1	5	7	2	6	9	3	8
8	7	2	9	5	3	1	4	6
9	6	3	4	8	1	5	7	2
6	5	8	3	7	9	4	2	1
1	2	7	6	4	8	3	5	9
3	9	4	5	1	2	6	8	7

1	4	8	6	3	5	7	2	9
9	6	3	7	2	4	5	8	1
2	5	7	9	8	1	3	6	4
4	1	5	2	9	3	8	7	6
7	9	6	1	5	8	4	3	2
3	8	2	4	7	6	9	1	5
6	2	9	8	4	7	1	5	3
8	3	1	5	6	9	2	4	7
5	7	4	3	1	2	6	9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조선시대 배추는 금값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조선시대 배추는 금값에 버금갔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배추를 채소의 제왕이라고 했을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보급은 제대로 안 됐다. 배추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1세기 무렵, 송나라 때 배추의 품종개량이 이뤄졌다. 이 무렵 순무를 개량해 배추라고 부를 만한 채소가 만들어졌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그 종자를 수입해 심었으니 배추 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다.

때문에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배추 종자를 구해다 주면 고맙다고 사례를 했다. 16세기 초, 중종실록에는 배추 종자를 밀수했다며 자수한 기록까지도 보인다. 배추 종자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공무역 중심의 조선경제에서 밀수가 이뤄졌던 것이다.

그러니 고려 때는 배추가 식용이 아니라 약으로 쓰였다. 고려 때 의학서인 향약구급방에 배추가 약으로 수록된 까닭이다. 조선 초기에도 배추는 왕실 제사에 쓰이는 채소였다. 일반인은 쉽게 맛볼 수 없는 채소였는지 조선 초기의 재상 서거정은 배추의 맛이 산해진미와 맞먹는다고 노래했다.

배추의 인기가 높아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리니 너도 나도 배추를 심었던 모양이다. 조선 중기 해동잡록(海東雜錄)에는 한양에서는 사람들이 성문 밖에 배추를 심어 이익을 본다고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지금 동대문과 왕십리 일대가 온통 배추밭이었다.

배추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남았기에 너도 나도 배추를 심었을까?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에 해답이 보인다. "한양 근처의 밭은 모두 최상급 전답으로 이곳은 모두 배추와 미나리를 심는 채마밭"이라고 했고, 배추와 같은 특용작물을 심으면 "논에 벼를 심었을 때보다 이익이 10배는 많다"는 것이다. 배추의 수익성이 이렇게 좋으니 배추 재배가 빠르게 확산됐다. 그 결과 19세기 말에는 배추값이 서민도 쉽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떨어졌다. 이랬던 배추 값이 올해는 너무 하락해 농민들의 근심이 커졌다.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회사는 부도, 사업도 실패, 방법없나 식품·목재·부동산쪽 진로 잡으세요

Q zakvpemhd 남자 65년 12월 16일 양력 17시21분

김상회선생님의 '사주속으로'를 열심히 보고 있는 독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막힌 사연을 보다가 제 사주도 궁금하여 상담 올렸습니다. 저는 올해 50세로서 사실은 병원에서 시간을 맞춰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위의 생년월일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업실패도 여러 번했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밀려 나오고 하여 생활이 고달픕니다. 그 역학원이 엉터리가 돼서 날을 잘못 잡아줘서 그런 건지 또는 억지로 태어난 결과인지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A 이왕 벌어진 일에 대하여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마다의 사주 여덟 글자는 전생의 업보와 조상의 은덕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학원에서 시간을 정해서 태어나게 한다면 우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왕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임산부가 위험할 때는 할 수 없겠으나, 좋다는 시간에 일부로 맞춰서 태어나서 잘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태어나는 해와 월은 이미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니, 정해진 연월에 맞춰서 좋은 날과 시를 맞추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귀하 사주는 '등잔불 밑에서 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서 어둠속에서 검을 휘두르니 뜻대로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생일지에 갑진(甲辰)백호(白虎)는 해당 육친의 흉액이 따른다고 하는 신살로서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운기가 좋게 흐를 때는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발복이 있습니다.

처성(妻星)에 든 백호는 처궁에 건강문제로 수심이 깊고 금전적인 문제로 처를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의 연이 변하기 쉽거나 부모 중에 한분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지(태어난 생일)에 진토(辰土)편재(偏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재물을 나타냄)속에 잠재된 을목(乙木)은 겁재(劫財:재물을 빼앗음)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재물을 겁탈 당함과 같으므로 강직한 성격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재주가 있지만 동업자로 인하여 손재를 보게 되니 동업을 피해야 한다. 53세 이후 사업은 발복할 수 있으니 식품이나 목재업, 부동산 계통으로 진로를 잡으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돈 문제는 해결이 된다. **60년생** 배우자의 돌출행동에 어리둥절~. **72년생** 악조건 뚫고 뜻을 이룬 격이다. **84년생** 과음으로 인한 실수 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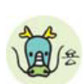
49년생 오해는 그 자리서 풀어라. **61년생** 방심하면 민망한 민낯 드러낸다. **73년생**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웃으며 헤어져라. **85년생** 뚝심과 끈기가 필요하다.



50년생 무거운 발걸음에 답답하다. **62년생** 부질없는 일에 헛심 말라. **74년생** 막판에 몰리나 탈출구는 찾는다. **86년생** 가난해도 꿈은 재벌처럼 꾸라.



51년생 과식으로 인한 탈 조심~. **63년생** 설익은 계획은 손해를 부른다. **75년생**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할 것. **87년생**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약이 된다.



52년생 기다림의 열매는 달다. **64년생** 못마땅해도 염장 치는 일은 금물~. **76년생** 영혼 없는 도전은 성공 못한다. **88년생** 구직자는 한 곳만 정조준 하라.



53년생 불안하면 움직이지 말라. **65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7년생** 일이 막히면 딴 곳에 눈 돌려라. **89년생** 실수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



42년생 집안 번성할 일 생긴다. **54년생** 마무리할 시간 욕심이 생길 때 조심~. **66년생** 모임가면 난감한 일 생긴다. **78년생** 마음먹었으면 불평은 말라.



43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에 야호~. **55년생** 움직일 분위기 무르익는다. **67년생** 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라. **79년생** 서두르면 지뢰밭에 들어간다.



44년생 중재한 일은 마무리된다. **56년생** 속삭이며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라. **68년생** 떠났던 사람이 돌아온다. **80년생** 감당 안 되는 일은 도움 요청할 것.



45년생 간판얼굴 역할 사양 말라. **57년생** 계획 서두르는 게 이롭다. **69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해 오 해피~. **81년생**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 즐겁다.



46년생 고민은 해결이 된다. **58년생** 허울뿐인 감투는 사양할 것. **70년생** 주변 의견 무시하면 후폭풍 거세다. **82년생** 과시욕이 심하면 지갑만 텅텅~.



47년생 자녀 일은 모른 척 하라. **59년생** 마음이 편안해 유쾌하고 즐겁다. **71년생** 불만 들어주는 선배가 고맙구나. **83년생** 사랑의 메신저 역할이 주어진다.



양현종, MLB 진출 무산

KIA "국가대표에 걸맞는 응찰액 아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양현종(26·사진)을 붙잡기로 최종 결정했다.

KIA는 26일 "양현종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 22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받은 포스팅 결과가 국가대표 좌완 에이스에 걸맞는 응찰액은 아니라고 판단해 포스팅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리그 진출을 꿈꿨던 양현종의 꿈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KIA는 애초 양현종의 해외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라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구단과 국가대표 좌완 에이스 양현종 본인이 납득할 정도의 응찰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포스팅 최고 응찰액 결과를 받아든 구단과 양현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4일 동안 머리를 맞대며 고심했지만 KIA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포스팅 금액은 당초 양현종과 구단 측이 고려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임에 틀림 없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 외신들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적어낸 포스팅 금액을 15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KIA는 이날 "이 정도 금액이면 양현종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연봉협상을 할 때도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현종은 이번 시즌을 마치며 구단 동의 하에 해외진출이 가능한 7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이제 양현종은 KIA에 합당한 이적료를 지급하며 자신을 영입할 의사가 있는 일본 구단을 찾거나 KIA에서 2년을 더 뛰며 이적료 없이 해외나 국내 이적을 꾀할 수 있는 9년 FA 자격 획득을 노려야 한다.

KIA는 KBO에 "양현종의 포스팅 최고 응찰액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KBO는 곧바로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통보했다. 이로써 양현종의 포스팅은 철회됐다. 양현종은 내년 11월 1일까지 포스팅을 신청할 수 없다. /김학철기자

메시, 잇단 '신기록 행진'

프리메라리가 이어 챔피언스리그 최다 골

리오넬 메시(27·바르셀로나)의 기록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메시는 26일(이하 한국시간)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GSP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아포엘(키프로스)을 상대로 3골을 쏟아냈다. 이 경기 전까지 메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71골을 넣으며 이 부문 종전 기록자인 라울 곤살레스(스페인)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날 터진 해트트릭으로 단번에 74골째를 쌓으며 역대 최다 골 신기록을 세웠다.

아울러 메시는 이날 챔피언스리그에서 5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해 대회 최다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다. 메시는 사흘전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세비야전에서도 해트트릭을 달성하며 리그 개인 통산 최다 골인 253골을 기록했다. 이전 기록은 텔모 사라가 1955년 세운 251골이었다.



26일(이하 한국시간) 키프로스 니코시아의 GSP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메시가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AP뉴시스

이로써 메시는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메라리가의 기록들을 모두 갈아치웠다.

메시는 2011-2012시즌 정규리그 50골로 프리메라리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썼다. 코파델레이(스페인 국왕컵), UEFA 챔피언스리그까지 더하면 모두 73골을 넣었는데 이는 유럽 무대를 통틀어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으로 남아 있다. 아울러 2012-2013시즌에는 정규리그에서 21경기 연속골을 꽂아 프리메라리가 역대 최다 연속 골의 기록도 남겼다.

지난 시즌 메시는 잦은 부상과 팀 성적 하락 등으로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의 기세에 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소속팀 바르셀로나와 함께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91경기에 출전해 74골(경기당 0.81골)을 넣은 메시는 라울(141경기 출전·경기당 0.5골)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골을 넣고 있다.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통산 100골이나 프리메라리가 통산 300골에도 도전할 수 있다.

내년에 발표될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수상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으로 이 상을 받아 현재 최다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이번 시즌 프리메라리가에서 20골을 넣으며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호날두와 경합할 전망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프로축구 전적 26일

서울	0	0	포항
인천	0	1	성남

△ 득점= 김동섭④(전45분·성남)

프로농구 전적 26일

삼성	16	18	13	22	69
SK	20	15	13	24	72
오리온스	14	20	18	14	66
KT	24	24	23	24	95

프로배구 전적 26일

흥국생명	2	3	현대건설
대한항공	3	0	한국전력

'음주' 펠프스, 美 수영 '올해의 선수'

자격정지로 시상식 불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29·미국·사진)가 음주·과속운전으로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미국수영 올해의 선수가 됐다.



펠프스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매리어트 마키스에서 열린 2014 미국수영연맹 골든 고글 어워즈 행사에서 올해의 남자선수상을 받았다. 펠프스가 미국수영 올해의 선수로 뽑힌 것은 다섯 번째다.

펠프스는 2012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지만 지난 8월 호주에서 열린 2014 팬퍼시픽선수권대회에서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회에서 그는 남자 접영 100m와 단체전인 계영 8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개인혼영 200m와 계영 4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거는 등 총 다섯 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그러나 펠프스는 지난 9월 말 음주와 과속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미국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대표 선수 명단에서도 제외된 채 현재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펠프스는 이날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세계 여자수영의 미래'로 평가 받는 17세 소녀 케이티 레데키는 이날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올해의 여자선수상을 받았다. 올해의 레이스상과 릴레이상까지 3개의 트로피를 들었다. /김학철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